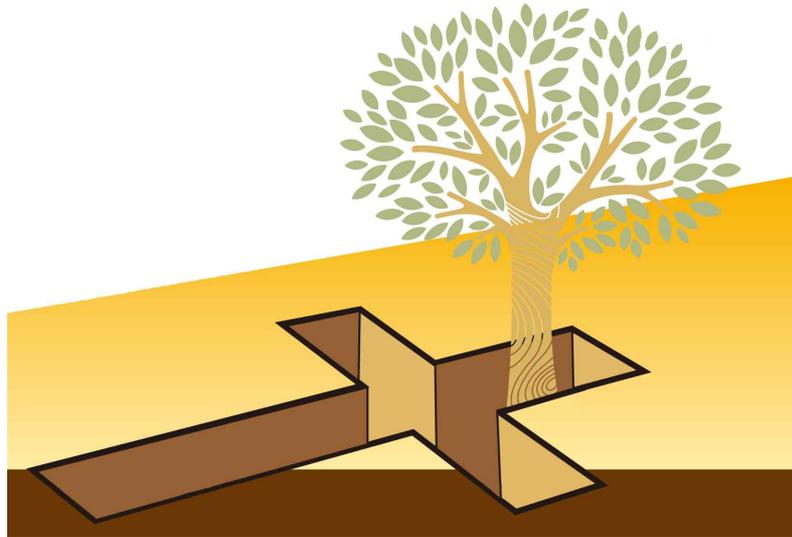


| 학술 심포지엄 |

교회 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일시 | 2013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명동 청어람 5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

| 일정 |

사회 김근주 교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10:00 ~ 10:30	접수
10:30 ~ 12:00	교회 세습에 대한 구약학적 고찰 전성민 교수(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회 세습에 대한 신약학적 고찰 김판임 교수(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신약학)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50	교회 세습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 배덕만 교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14:00 ~ 14:50	교회 세습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현요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5:00 ~ 15:50	교회 세습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6:00 ~ 16:50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박영신 명예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6:50 ~ 17:00	광고

※ 점심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목 차 |

교회 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I. 교회 세습에 대한 구약학적 고찰	5
II. 교회 세습에 대한 신약학적 고찰	18
III. 교회 세습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	25
IV. 교회 세습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40
V. 교회 세습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52
VI.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61
광고	74
참여단체 소개	75

교회 세습에 대한 구약학적 고찰

전성민 교수

(웨스턴민스터신학대학원 구약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한국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습”에 대해 구약이 줄 수 있는 다양한 통찰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먼저 세습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2) 그러한 세습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구약이 줄 수 있는 통찰을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3) 세습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는 몇 가지 구실들을 구약의 입장에서 논박할 것이며, (4) 마지막으로 세습 문제와 관련해 구약 윤리의 한 가지 주제를 논의할 것이다.

1. 세습의 의미

이번 포럼에서의 발표를 부탁 받으며 받은 제목은 “교회 세습에 대한 구약학적 고찰”이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논의들을 보면 “교회 세습”이 아니라 “담임목사직 세습”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또한 그 표현 보다 “자녀 청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¹⁾ 이러한 표현들의 차이는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가치 판단 때문일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이어 담임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을 경우 중립적으로 보이는 “자녀 청빙”이라는 표현을,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세습”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세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녀 청빙”이라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녀 청빙”이라는 겉모습 속에 “일정한 특권이 혈연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다.²⁾ 좀 더 정교하게 세습은 “부와 권력 혹은 영향력이 혈연으로 엮어진 선후대 사이의 이전(移轉)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³⁾ 따라서 “세습”이라는 표현이 정당하지 아닌지의 문제는 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특권의 이양”⁴⁾이

1) 오덕호, “한국 교회는 한국사회의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세습문제에 대한 신학적 조명”에 대한 세습 반대 논찬.” <http://seban.kr/19>.

2) 박득훈, “일부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을 반대한다.” 2000년 9월 5일(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복음과 상황 주최로 열린 공동포럼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와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문건. <http://seban.kr/12>.

3) 고세훈, “아, 한국 교회여! 이 땅의 기독교청년들이여!” 기윤실, 담임목사직 세습반대운동 자료집 (2001. 2). <http://seban.kr/17>. 참고. “둘째 이런 대물림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많은 분들의 지적과 같이, 대형교회 지도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미련이 이런 현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만열,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의 문제” 2000년 9월 5일(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복음과 상황 주최로 열린 공동포럼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와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문건. <http://seban.kr/14>.

4) 박득훈. 앞의 글.

실제 벌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직결될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특권의 이양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습”이라는 표현은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부모에서 자녀로 담임목사직이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담임목사라는 직분의 세습 뿐 아니라 “교회 세습”이라고 까지 불릴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세습이라는 표현은 어떤 권리의 이양을 말하는 것이며 교회는 그렇게 이양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 세습”이라는 표현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미 한국 교회의 몇몇 경우들은 교회가 대를 이어 이양될 수 있는 특권의 총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경우 “세습” 또는 “교회 세습”이라고 까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 세습의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특권이 이양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분석들이 지난 십 년 넘게 있어왔으며 그것들을 크게 (1) 한국 사회의 혈연주의⁵⁾와 (2) 한국 교회의 권위적 지배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⁶⁾ 이러한 원인 분석 자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면서 그 원인들에 대해 구약이 줄 수 있는 통찰들을 살펴볼 것이다.

1) 혈연주의에 대한 구약의 통찰

세습이 혈연주의 때문이라는 설명은 여러 통로를 통해 지적되어왔다. 기윤실은 <세습에 대한 입장>에서 기독교는 혈연이 아니라 언약의 종교임을 천명했다. 이정석 교수도 “아들이 아버지의 가장 적절한 후계자라는 사고는 의심의 여지없이 혈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선택하려는 생각을 아예 가로막는 혈연적 편애이다”라고 지적했다.⁷⁾ 이러한 지적은 적절하다. 하지만 기독교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혈연주의를 극복한 듯 아래처럼 서술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제사장직이 세습되었으며, 다윗의 왕직도 세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혈족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되었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육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임을 바울이 분명히 하였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 측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혈족의 의미를 무시하였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12.48-50)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혈족주의적 사고를 버리도록 명령하

5) 이정석, “목회세습이 바람직한가?” 2000년 9월 5일(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복음과 상황 주최로 열린 공동포럼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와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문건. <http://seban.kr/13>. 오덕호, 앞의 글 참고.

6) 이승중, “평신도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산다: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에 즈음하여.” 2000년 9월 5일(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복음과 상황 주최로 열린 공동포럼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와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문건. <http://seban.kr/15>.

7) 이정석, 앞의 글. 그는 또한 “아들이 가장 후계의 책임자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혈족주의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였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마10.37) 따라서, 교회는 철저히 혈족주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영적 가족의식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었다.⁸⁾

여기서 언급된 대로 아론의 제사장직과 다윗의 왕직이 세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일 뿐, 성경이 바람직하게 제시하는 리더십과 관련해 규범적이지 않을 수 있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은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벌어졌던 일들이 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은 구약 전체(그리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의 지향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사 را를 자신의 아내라고 속인 사건이나 아굽의 속임수들이 우리에게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⁹⁾ 요컨대 구약 성경 또한 혈연주의를 따르지 않는다.(어떤 의미에서 왕직의 세습이 규범적인 리더십 이양이 아닌지는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구약이 혈연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들은 가장 혈연을 중시하는 듯한 여호수아서에서조차 찾아볼 수 있다. 여호수아서는 가장 혈연적인 혹은 민족적인 책으로 흔히 오해된다.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멸절을 당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앙, 혹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 여호수아의 초입에서부터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인 라합이 헤세드에 토대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도한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이후,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른다. 이 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설명하시는 본문이 7장 11-12절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 또는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 “헤렘”의 번역으로 가나안 사람의 “진멸”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이다. 이 단어는 7장 1절에도 등장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헤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헤렘]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런 관찰들을 토대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헤렘”시켜야 했던 가나안과 마찬가지로 “헤렘”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나안과 다를 것이 전혀 없어졌던 것이다.¹⁰⁾ 이러한 사실은

8) 이정석, 앞의 글.

9) 이 진술이 성경이 우리의 규범이 된다는 고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10) L. Daniel Hawk, *Joshua* (Berit Olam; Colled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117.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켰던 언약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라합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여호수아의 기록은 아간의 범죄를 거쳐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된 과정이 완전히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은 비록 나무패고 물 길는 종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에서도 혈연이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수23:16) 여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던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 때문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열왕기하에 이르러 끝나게 된다. 그들은 혈연적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었던 이방 민족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혈연이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2) 권위적 지배구조에 대한 구약의 통찰

이승중 교수는 “세습이 수용되는 원인”으로 “교회의 권위적 지배 구조”를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권위적 지배 구조가 “교회의 위계적 계층제”를 활용한 “가시적 권력”, “반대의사의 표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비가시적 권력”,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세습의 정당성에 대한 부당한 믿음을 도출”하는 “잠재적 권력” 등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강화된다고 설명한다.¹¹⁾ 그리고 그는 이러한 “권위적 지배구조 하에서 작용하는 권력은 그 유형을 막론하고 “착취적 권력”이라는 공통점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¹²⁾ 그리고 그것은 “목사는 평신도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고, 평신도는 마치 전제군주의 신하와 같이 저항없이 묵종”하게 만들고 그 결과 세습이 “유효한 저항없이 저질러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¹³⁾ 이러한 설명에서 목사와 소위 “평신도”간의 권력 관계를 전제군주와 신하로 비유한 것은 흥미롭다. 사실 김동호 목사 또한 세습의 근본원인으로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지적하며 “담임목사가 왕과 같은 힘을 가진 교회는 담임목사 세습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경우 세습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설명한다.¹⁴⁾ 이러한 설명들이 적절하다면 한국 교회의 세습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정을 살피는 것은 의미있는 통찰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왕정

11) 이승중, 앞의 글.

12) 이승중, 앞의 글.

13) 이승중, 앞의 글.

14) 김동호,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와 우리의 대안.” 2000년 9월 5일(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복음과 상황 주최로 열린 공동포럼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와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문건. <http://seban.kr/16>.

에 대해 은연 중에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왕정에 대한 구약의 평가, 특히 소위 신명기 역사의 평가는 냉정하다.¹⁵⁾ 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왕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왕위의 혈연 계승에 대해서도 성경의 평가는 명확히 부정적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왕정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삿8:22)라고 청할 때이다. 여기에 왕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세습되는 통치에 대한 언급은 왕정을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요컨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정답”을 말한다(23절).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미디안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한다.¹⁶⁾ 이 요청을 받고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금 귀고리가 천칠백이었다. 이것을 세겔의 양으로 생각하고¹⁷⁾ 한 세겔을 12그램 정도로 계산하면 약 20킬로그램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 목에 둘러싼 사슬”을 기드온이 가지게 된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이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기드온의 왕적인 권세는 그의 아내가 많았다는 사실과 그들을 통해 얻은 아들이 칠십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감지할 수 있다. 칠십이라는 아들의 수는 후에 아합의 아들들의 수와 동일하다(왕하10:1).¹⁸⁾ 더욱이 아내들을 통한 아들 외에도 첩에서 얻은 아들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아비멜렉)이었다.

기드온은 자신 실제적으로 왕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으나, 그는 말이라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겔에서 실제로 왕이 된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세겔 사람들을 설득했던 논리는 매우 혈족주의적이다. 아비멜렉은 먼저 세겔에 있는 자신의 외가 식구들에게 어차피 누군가가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면 자신이 그들의 “골육”¹⁹⁾임을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은 그 말을 세겔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말에 세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가 된다고 말하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혈연에 바탕을 두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왕정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요담의 우화의 핵심 주장이다. 결국 요담의 말대로 결국 세겔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손에 멸망당하고, 아비멜렉도 그 사건과 연관되어 죽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던 첫 왕의 운명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왕적 권세를 누렸던 기드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며, 사실상 기드온 또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후광 속에 성장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요아스-기드온-아비멜렉으로 이어졌던 한 집안의 권세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고 말았다.

15) 물론 친왕조적인 본문들과 반왕조적인 본문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지만, 반왕조적인 입장이 더 뚜렷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16) 기드온은 “귀고리”라고만 말하지만 나레이터는 그것이 “금 귀고리”였음을 밝힌다.

17) 개역 성경에는 천칠백 세겔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그냥 천칠백이라고만 되어 있다

18) Tammi J. Schneider,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128.

19) 창2:23; 창29:14; 삼하5:1; 삼하19:12; 삼하19:13; 대상11:1 비교.

사사기에는 여섯 명의 대사사 외에도 여섯 명의 소사사가 등장한다. 그 중에서 첫 소사사인 삼갈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사사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 다음과(돌라, 10:1-2; 야일, 10:3-5), 입다 이야기 다음에 나온다(입산, 12:8-10; 엘론, 12:11-12; 압돈, 12:13-15). 이 소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자녀들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다. 야일의 경우, 아들 삼십 명, 입산은 아들 삼십과 딸 삼십 명, 그리고 압돈은 마흔 명의 아들과 서른 명의 손자가 있었다. 후손들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기드온의 칠십 아들과 아비멜렉의 사건과 더불어 왕정을 연상시키는 기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왕정을 연상시키는 소사사들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전체 맥락 속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²⁰⁾

사사기의 전체 구조에서 기드온 이야기는 전환점을 이룬다. 대사사의 경우 기드온 보다 앞에 나오는 웃니엘, 에훗, 드보라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기드온-아비멜렉 이야기글 전환점으로 그 후에 나오는 입다와 삼손은 사사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사기 전체 구조 속에서 기드온-아비멜렉 유사왕조의 실패 이후에 나오는 소사사들의 자녀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자녀를 많이 둔, 그래서 혈연적인 특권이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범 사사로 제시되는 웃니엘의 경우, 그의 자녀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욱 지지된다.²¹⁾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늙어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아를 사사로 세운다. 그러나 그렇게 계승된 사사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산다(삼상8:3). 그리고 그들의 잘못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중심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된다. 요컨대 사무엘의 사사 세습은 잘못된 것으로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지도력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왕위 세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고 여겨지는 사울의 경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 받지 않고, 새로운 인물인 다윗이 그 다음의 왕이 되었다. 그것을 사울의 잘못 때문이기도 했으나(삼상15:26-28) 이스라엘의 첫 왕이 그의 왕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그에게 주어진 나단의 신탁은 사울과는 달리 다윗 왕조 안에서의 왕위 계승을 긍정한다.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삼하7:11-16)

이 나단의 신탁은 다윗 왕조와 그 안에서 벌어질 왕위 세습을 긍정하며 신학적으로 지지한다.

20) Schneider, 153-158, 187-191 참고.

21) Schneider, 43. 대상4:13에 의하면 웃니엘에게는 하닷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여호와께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그 세습한 왕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잠시 징계는 있겠지만 사울과는 달리 은총을 빼앗지 않고 그 왕가와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보다 더 왕위 세습을 긍정하는 본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과 관련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역사상의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다!) 그렇게 이 약속을 “실패”하게 만든 것은 권력을 세습하며 누렸던 왕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적 층위에서는 깨질 정도로 다윗 왕조는 잘못되어버렸던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 결국 배교로 끝나, 왕국이 둘로 쪼개져야 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받으나, 그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에 대한 경고를 모두 범하고 말았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함의 통치 아래 유다는 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우상숭배에 빠져 들었다(왕상14:22-24; 왕하17:0-12 비교).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와의 가장 확실히 의지 혹은 신뢰(trust)했던 왕으로 소개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그러나 그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 반종교개혁을 일으키고(왕하21:3 참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몰아내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보다 더 큰 악을 행하게 한다(왕하21:9). 그 결과 여호와는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신다(왕하21:12-15; 왕하23:26). 그렇게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이 역사적 층위에서는 깨지고 만다. 요시아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순종했고 그에 따라 가장 온전히 돌이켰던 왕으로 소개된다(왕하23:25).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왕위를 세습한 그의 자손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여호아하스, 23:32; 엘리야김=여호야김, 23:37; 여호야긴, 24:9; 맛다니아=시드기야, 24:19). 그리고 결국 이 네 명의 왕을 끝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된다.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는 모두 어떤 측면에서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들이었으나,²²⁾ 그들에게서 왕권을 세습한 그들의 아들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열왕기서에서 예후, 엘라, 살룸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된다.²³⁾ 엘라와 살룸은 어떤 평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예후만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로서는 상대적으로 긴 그런데 그러한 “의로운 예후”로부터 시작된 예후 왕조의 경우에도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여호아하스, 왕하13:2; 요아스, 왕하13:11; 예로보암 2세, 왕하14:24; 스가랴, 왕하15:9). David Lamb은 이 네 명의 예후의 후예들은 고대 근동의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여지들이 있던 왕들이었으나(긴 통치기간[스가랴 예외]과²⁴⁾ 군사적인 성공²⁵⁾ 신명기 역사 편집자의 왕위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논한다.²⁶⁾ 그리고 이러한 왕위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우리가 앞에서

22) G. N. Knoppers, ““There Was None Like Him”: Incomparability in the Books of Kings,” *CBQ* 54 (1992): 411-431.

23) 예로보암(왕상14:9)의 경우에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없다. 그 외에는 모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평가된다. 이 주제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David T. Lamb, *Righteous Jehu and His Evil Heirs: The Deuteronomist's Negative Perspectives on Dynastic Succession*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를 보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놓은 표는 위의 책 20쪽에 있다.

24) Lamb, 164-177

25) Lamb, 177-204.

살펴본 의로운 지도자 혹은 왕이었던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의 후계자들을 악하게 서술한 패턴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⁷⁾

의로운 왕조 설립자가 악한 후계자로 계승되는 신명기역사 편집자의 패턴은 예후 왕조에 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역사 편집자는 이 패턴을 다윗 왕조와 왕정 이전의 기드온, 엘리, 사무엘 왕조들에 관해서도 반복한다. 따라서 신명기역사 편집자는 왕위 세습을 결함이 있는 제도로 본다. 왜냐하면 왕조 세습을 통해 선택된 지도자들은 전형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신명기역사 편집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왕위를 세습한 지도자들보다 선호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맨 처음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인도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여호와께 더 의존적이기 때문이다.²⁸⁾

요컨대, 혈연을 통한 왕위 세습을 핵심으로 하는 왕정이 구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권위적 지배구조라면, 구약은 그러한 왕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대표해야 하는 근본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자리를 스스로가 차지해 버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며 왕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표시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그들이 ...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러한 지적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의 권력이 어떻게 “착취적 권력”인지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신다(삼상8:10-18). 한 마디로 왕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만큼 착취적인 권력인 것이다(삼상8:17-18).

혈연에 토대해 권력이 세습되는 왕정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한 지도력 승계로 볼 수 있는 예들은 거의 모두 혈연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모세를 승계한 여호수아, 엘리를 승계한 사무엘, 엘리야를 승계한 엘리사, 이런 승계들은 모두 혈연적 승계가 아니었다.²⁹⁾

왕정에 대한 논의는 교회의 권위적 지배구조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되었다. 교회의 권위적 지배구조가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라는 이승종 교수의 지적, 비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담임목사가 왕과 같은 힘을 가진 교회”의 경우 세습을 피할 수 없다는 김동호 목사의 지적, 그리고 세습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왕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세습 혹은 담임목사직 세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담임목

26) Lamb, 204-255.

27) Lamb, 162.

28) Lamb, 259. “Dtr’s anti-dynastic pattern of a righteous founder being succeeded by evil heirs is not only seen in the dynasty of Jehu, but Dtr repeats this pattern in David’s dynasty and in the pre-monarchical dynasties of Gideon, Eli, and Samuel. Thus, Dtr views dynastic succession as a flawed institution because dynastically chosen leaders are typically evil. He prefer charismatic leaders to dynastic ones since they are more dependent upon YHWH, not only for initial legitimation, but also for guidance and support during their reign.”

29) 다윗 왕가와 제사장의 혈연 세습을 통해 교회 세습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가 어려움을 겪자 최근에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홍재철, “후임 담임목사 청빙”(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이름으로 2012년 7월 19일 발표된 문건).

사의 권력이 교회라는 조직/공동체 안에서는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이 되었다는 반증이며, 그런 권력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며, 그런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³⁰⁾

3. 세습 정당화 구실에 대한 구약의 통찰

세습을 정당화하는 여러 구실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자주 반복되는 두 가지 구실을 들자면 (1) 자녀가 부모의 담임목사직을 계승할 때 안정적인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2)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있다.³¹⁾

1) 안정적인 목회를 위한 세습?

세습이 안정적인 리더십 이양의 방법이라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후임자가 전임자와 같은 목회철학을 가지고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증거하며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후임자가 수년간 전임자의 지도력 아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경험들은 후임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여러 성장하는 대형교회에서 아들을 훈련시켜 담임자가 되게 하는 것은 첫째, 목회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이며, 둘째, 후임자의 시행착오와 적응의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³²⁾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안정적인 리더십 이양의 핵심은 후임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라는 데 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미리부터 준비되었던 사람으로 성공적인 리더십 이양의 예가 된다. 문제는 후임자를 준비시키기 시작할 때 부터 혈연이 기준이 되어 선택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습이 진정 안정적인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목회사회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³³⁾

세습이 안정적 목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왕권이 세습되었던 이스라엘의 경우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정변으로 인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불안했다(왕상14:15). 남유다의 경우, 다윗 왕조가 잘 이어진 것으로 보이나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 세습되는 왕정이 안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등불을 주셨기 때문, 즉,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왕상11:36; 15:4; 왕하8:19). 아버지의 통치 철학을 아들이 잘 이어갔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졌던 은혜가 다윗 왕조를 지켜냈으며,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던 때였다(삼상8:15).

30) 물론 담임목사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자녀가 담임목사직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 한국의 중대형교회에서 벌어지는 “승계”들은 거의 모두 권위적 지배 구조와 담임목사의 “왕과 같은 힘”아래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1) 박동찬, “아들이 후임담임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목회적 고찰.” <http://seban.kr/20>.

32) 박동찬, 앞의 글.

33) 한 때 세습의 예로 제시되었던 미국의 수정교회의 파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적법한 절차?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과정이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논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이렇게 서술한다.

세습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 실제로는 세습이면서도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나름대로 완벽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습이 아닌 청빙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담임목사의 아들도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담임목사의 아들을 후임으로 청빙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뻔히 알면서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아니라고 반증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³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약은 최소한 두 가지 통찰을 줄 수 있다. 먼저, 이사야 10장 1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새번역). 법 자체는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재판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과정이 권력이 개입했을 때 얼마든지 근본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어떠한 일을 행했던 과정이 적법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의 옳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만든다. 이 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을 두 사람으로 명한 것은 법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명기 19장 16절에 의하면 재판에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이 필요했다. 즉,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과 증인으로 두 불량한 자들이 세워진 것이 이세벨의 편지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나봇이 사는 성읍의 사람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볼 때, 나봇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형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적법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서는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이 범해지고 있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약간 확대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까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외하고는 흔히 십계명 중 윤리적 계명이라고 이해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거의 다 범해졌던 것이다.³⁵⁾

구약 윤리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법과 윤리의 간극”이라는 것이 있다.³⁶⁾ 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윤리는 단순한 준법의 수준을 넘는다는 것이다. 룯기에서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룯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포기했던 “아무개”의 결정의 경우, 그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룯기는 그의 행동이 위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송 받을 만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34) 김동호, 앞의 글.

35) Iain Provan, *1 and 2 Kings* (NIBC; Peabody: Hendrickson, 1995), 157-150 참고.

36) Gordon J. Wenham, “The Gap Between Law and Ethics in the Bible.” *JIS* 48 (1997): 17-29.

그의 백성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는 사실을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드러낸다.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윤리 수준은 적법한 절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윤리의 간극”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실, 어떤 행위가 법의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에 호소하는 방식은 굳이 세습 뿐 아니라 다른 행위들을 정당화 할 때도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른 삶의 가장 기초일 뿐, 어떤 행동의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의미 있는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다.

4. 판단의 기준

그렇다면 세습을 포함해 어떤 행동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약 윤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답을 한다.³⁷⁾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른 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행동을 모방할 수는 없지만 이집트에서 종과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과 행하신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따라야 할 모방의 대상이었다(신25:18 참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 바른 일이다.

세 번째로는 “자연법”이 윤리적 행동의 한 토대가 된다.³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은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하나님과의 구속적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열방들의 경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나는 질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모스 1장에는 하나님은 암몬의 경우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신다.³⁹⁾ 전쟁을 할 때 대적의 여인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는 율법은 없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비인륜적”이기 때문이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도덕 질서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도덕 질서를 세우셨고, 그런 질서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양심” 또는 “상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윤리를 생각할 때, 계시적인 하나님의 명령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구약 윤리의 자연법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요컨대 상식 또는 양심이 (구약)성경 윤리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 논의가 세습과 관련되어 의미 있는 이유는 교회 세습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이다.

광림교회의 세습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2000년 이정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상당한 인품과 역량을 갖춘 목사라면 누가 후임자로 선정되어도 큰 차이를 가져오지

37) John Barton, “The Basis of Ethics in the Hebrew Bible,” *Semeia* 66 (1994): 11-22.

38) John Barton, “Natural Law and Poetic Justice in the Old Testament,” *JTS* 30 (1979): 1-14 참고.

39) John Barton, *Amos'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SOTS Monograph Series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참고. 여기서 나는 세습이 비인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않는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아들이 후임자가 되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다른 목사가 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가 세습을 정죄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현실에서, 그리고 상당수의 교인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번 결정되었다 하여 목회세습을 강행하는 것이 덕스러운 행위인가? 설령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⁴⁰⁾

최근 교회2.0 목회자 운동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세습은 몰상식적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불의, 타락과 비민주적 권위에 대해 책망하고 개혁을 촉구해야 하는 예언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과 정직성을 담보해야 할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조직과 공공기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습을 시도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분제가 철폐된 사회에서 세습은 영적 도덕적 탁월성은 커녕 도덕적 저급성과 몰상식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⁴¹⁾

물론 세습은 자연법이나 상식이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라 구속과 계시의 윤리가 적용되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 안의 잠언의 존재와 그 신학과 윤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상식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잠언에서 어떤 행동이 권고되는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유익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 반대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의 본래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⁴²⁾

“자연법”에 대한 구약윤리의 논의는 이러한 상식과 사회적 상황에 근거한 판단 또한 (구약)성경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수의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어떤 주장을 다수의 뜻과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많은 경우 위험할 수 있으며 세습에 관한 문제 또한 이에 속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론

지금까지, 세습의 의미, 원인, 구실들을 살피면서 각 문제들에 대해 구약이 줄 수 있는 통찰들을 정리했다. 특히 세습의 원인으로 혈연주의와 권위적 지배구조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약도 명확히 반대하고 있음을 보았다. 기독교가 혈연이 아니라 언약의 종교인 것은 신약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래왔음을 주로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 확인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권위적 지배구조로 왕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구약, 특히 역사는 혈연에 의한 세습을 토대로 하는 왕정

40) 이정석, “목회세습이 바람직한가?” 2000년 9월 5일(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복음과 상황 주최로 열린 공동포럼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와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문건. <http://seban.kr/13>.

41) 교회2.0 목회자 운동, “담임목사직 세습을 개탄하며 제도적 금지를 요구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발표 문건. <http://seban.kr/28>.

42) Christopher J.H. Wright, “Ethical Decisions in the Old Testament,” *European Journal of Theology* 1 (1992): 123-140 참고.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권력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정반대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람직한 지도력 이양으로 보이는 예들은 모두 혈연에 기초하지 않았다.

세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수준은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님을 보았다. 법 자체가 권력의 이해 때문에 왜곡될 수 있으며, 법의 실행 또한 얼마든지 겉으로는 그 절차를 적법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악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나뭇을 죽이고 그의 밭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다. 세습에 대한 반대 이유 중에는 세습이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구약 윤리의 체계 안에서 얼마든지 토대를 가질 수 있는 주장임을 구약 윤리의 “자연법”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을 확인했다.

부모의 담임목사직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이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맥락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와 사회의 상황은 그러한 일이 단순한 “자녀 청빙”이 아니라 “일정한 특권이 혈연적으로 계승”되는 “세습”임이 분명해 보이며, 그런 세습은 소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구약 성경이 반대하는 것이다. 교회 세습은 목회자가 왕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세습에 대한 신약학적 고찰 - 신약성서에서 바라본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 -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신약학)

들어가며

1997년 충현교회에 이어 감리교의 세 형제들(김선도, 김홍도, 김국도)이 줄줄이 교회를 세습했다. 이들 교회 외에도 많은 대형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있다. 교회 세습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논의하곤 했다. 그러다 지난 해 2012년 6월에는 충현교회에서 아들에게 세습했던 김창인 목사가 15년 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교회 세습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세습이란 봉건주의 사회의 특징으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봉건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가는 것을 가업을 잇는 훌륭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물론 가업을 잇는 책임을 맡아들에게만 있고, 다른 아들은 자유로웠다. 종교 영역에서 세습의 형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의 가문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 세습이란 부정적이다. 세습은 아들이라는 이유에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박탈하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

가톨릭교회는 사제에게 결혼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교회권력의 세습의 문제는 개신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일이라 하겠다. 물론 충현교회 이전에도 개신교의 교회 세습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의 교회 상황은 대개 열악하므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가업을 잇는 숭고한 결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부와 권력을 축적한 대형교회의 세습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습을 한 교회의 신도들 중에는 “아버지가 훌륭하시니, 아들은 당연히 훌륭하실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설혹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훌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만 유독 비민주적이고 봉건주의적이어야 할까? 특히 재정 상태가 거대한 대형교회의 경우는 이런 비민주적인 세습은 권력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힘까지 세습하는 경유이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하다.

과연 성서는 교회 세습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려줄까? 예수님은 한국 교회의 세습을 바라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까? 교회 개혁에 열심이었던 바울은 현재 한국 교회의 세습 상황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진다.

신약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현재 교회의 조직과 같은 것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목사라는 직책도 없었을 것이므로, 교회에 대한 기본 개념, “교회 지도자” 혹은 “후임자”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약성서에서 세습을 정당화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회 세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교회 지도자 후임자 선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약성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

1) 예수의 교회와 지도자 이해

예수가 지상에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며 외친 말씀은 “때가 왔다.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는 것이었다. 하나님나라의 시작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예수가 지상에서 활동하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하며 제자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셨으리라.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외에 여덟 명이나 더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여러 치유와 귀신축출 등의 기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었다.

예수의 지상 활동은 개인의 탁월한 능력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운동이었다. 그 운동은 여럿이 하는 것이다. 운동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수는 열 두 제자를 불러 둘씩 둘씩 묶어 보내며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알리라고 한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열두 제자를 보내 후에는 70인을 세워 다시 둘씩 보내어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알릴 것을 촉구한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나라 운동을 함께 도모하며 동고동락 하였지만, 우리는 그 운동을 교회라 부르지는 않는다. 현대 교회와 같은 조직도 찾아보기 어렵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기리는 단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교회 구성원과 교회지도자가 가져야 할 품격에 대한 윤곽을 찾아볼 수 있다. 마가복음 3장 31-35절에 보면 유명한 일화와 함께 예수의 발언이 전해진다.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토론할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찾아와 문밖에서 예수를 부른다. 이에 대한 예수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막10:33)고 반문하시며 그와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막10:35)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은 한국 교회 세습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꼭 혈육관계에 있는 아들에게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옳으냐? 신앙 안에서 모든 이들이 형제 자매이고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교회 후

임자 선정에 있어서 친자를 넘어서는 가능성의 폭을 열어주는 말씀이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35-45절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기대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전해진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고자 한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다(막 10:37). 이에 대해 예수는 냉정하게 거절한다.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 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막10:40)고. 이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전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도자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지도자라 하면, 우리는 타인보다 능력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예수의 사상에 의하면, 지도자는 타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의 지상 생활이 마감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알려져 있다(갈1:18-2:10). 이들 중 야고보는 예수가 선택하여 불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다. 그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다. 마가복음 3장 31-35절에 의하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예수 생전에 예수의 진가를 잘 알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예수 사후 어떻게 예수를 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주장이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60년대에는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였는지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의 아들이 승계했다는 기록도 물론 없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바울의 교회와 지도자 이해

바울이 편지를 작성하던 시기는 50-56년간이다. 이 시기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후 20년 이상 지난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이라 칭하였고, 바울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 바울은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요즘 목사들처럼 정년 은퇴나 은퇴 후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같은 연금을 받는 원로 목사 같은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는 시간이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알릴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떠나 다른 곳에 전도한다. 한 지역에 머물러 제자를 양육한다거나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 선정에 고심을 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1) 교회 이해

바울의 교회이해는 바울이 사용한 용어를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다.

①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 낱말은 신약성서에 114회 사용되고 있으며 바울서신에서는 44회 사용된다. 에클레시아는 “~부터”란 의미의 에크(ek)와 “부르다”란 의미의 칼레오(kaleo)가 합성된 어휘로서 “불러내어진 자들”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자들”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대 그리스나 헬레니즘 시대에 이 낱말은 “투표권을 지닌 자유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란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초기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였으므로 이 낱말을 교회 모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성도(호이 하기오이)

성도란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고,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바울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고 부르곤 하였는데(롬15:25-26; 고전16:1; 고후8:4; 9:1, 12),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타칭 부르던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함께 새로운 자의식, 즉 죄사함받고(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고전6:11 참조).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았고, 이 점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

③ 그리스도의 몸(소마 크리스투)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말한다(고전 12:12-31). 특히 고린도교회는 교인들 간에 각자가 가진 은사들을 자랑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으로 내 놓은 개념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고, 개개의 교회 구성원들은 한 몸의 지체들(손, 발, 눈, 귀, 코 등)이다. 각 지체들이 기능을 하여 한 몸이 살아가듯이 교회도 개개의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함으로 살아가는 유기체로서, 드러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④ 성령의 전(=성전)

세습하는 교회에서 선호하는 교회 이해가 성전으로서의 교회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예수와 바울이 활동하고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에 존재하던 성전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지은 성전이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외쳤어도 유대교 제사장들은 성전제의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여겼다.

바울이 성전 개념을 사용한 것은 교회 건물을 두고 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교인들로 하여금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과정에서 선언한 말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전6:19). 교회, 즉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전을 위한 목회자의 활동은 교인을 위한 봉사여야 하는 것이 옳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교인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2) 교회 지도자 이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전12:28). 바울에 의하면 이 모든 직책들은 성령의 은사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교회 안의 직분은 은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모두 교회를 위해 중요하지 순위를 매길 수 없지만, 사도, 선지자, 교사가 보다 지위 높은 직책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던 사람이다. 사도라는 직책은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사역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지자와 교사는 지역 공동체 출신으로서 오래 머물면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선지자란 구약성서의 예언자와 달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따라서 사도처럼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공동체 멤버들을 잘 알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주어야 한다.

바울은 물론 이 모든 역할을 다 했지만, 자신의 자의식으로는 “사도”이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선교 여행을 다닌다.

(3) 동역자 이해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활동한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기 선교활동은 바나바와 함께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별로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함께 활동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되고, 그 외 바울서신 서두에 언급되는 발신인들도 바울의 동역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중에 소스데네는 한 번(고전1:1), 실루아노는 두 번(살전1:1; 살후1:1), 그리고 디모데는 여러 번 언급된다(고후1:1; 빌1:1; 골1:1; 살전1:1; 살후1:1; 몬1).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자신과 동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중”으로 소개되고, 그 외의 서신에서는 “형제”라는 칭호로 소개된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의 활동에서 디모데는 특별히 오랫동안 가깝게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서신에서는 디모데가 바울과 공동발신인으로 기록된 반면, 목회서신(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서신에서는 디모데를 바울의 “믿음 안에서 참아들”(딤후1:2), “사랑하는 아들”(딤후1:2), “나의 참아들”(딤후4)로 언급된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 교회 세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이트를 준다. 즉, 세습하고 싶은 아들이 꼭 혈연관계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즉, 많은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하는 경우 부목사들도 사임하게 하는데, 오히려 부목사 중에서 후임자를 구하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다니는, 소위 “사도”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와서 바울이 아

나라 자기네들이 진짜 사도라면서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자신들의 사도권을 행사하려던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0-12장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바라지 않았던 반면, 적대자들은 바라지 않는 것 자체가 그의 사도직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며 자신들이 교회로부터 바라는 것은 사도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갈라디아서 1장 6-10절에 의하면 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빌립보서 3장 1-21절에서는 “개들” 혹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심한 표현으로써 자신의 분개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바울의 적대자들은 유대 출신으로서 믿음 외에 율법의 준수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바울의 선교 활동을 무력화하려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후임자 이해

한국 교회의 세습은 결국 후임자 선정의 문제이다. 세습을 승인하는 교인의 입장에서 나온 표현은 주로 이런 것이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어 혼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잘 알고 있는 아들이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럴 듯한 이유처럼 들린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후임자로 선정하고 떠났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교회 소식을 듣는다. 교회에 파당(분쟁)이 있다는 것이다(고전1:11). 교인들 말로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전1:12; 3:4)는 것인데, 이 문제는 결국 바울이 떠난 후 아볼로가 고린도교회에 들어와 지혜의 말을 가르침으로써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일이다. 개척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과 후임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고전3:9),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뿐이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한다(고전3:6-7). 이로써 바울을 좋아하든 아볼로를 좋아하든 교회 안에서 하나될 것과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고전3:3, 21). 꼭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후임자는 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르고 교인들이 가지는 호감이 다를지라도 교회가 하나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다.

나오는 말

신약성서 안에서 교회 세습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어느 한 구절도 교회 세습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혈육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예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모든 믿는 자들을 형제자매로 부르는 성가족 공동체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에서 세습을 하는 분들은 아마도 유대교의 제사장(사제)과 개신교의 목사를 동일시함으로써 구약성서에서 성서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구약성서 시대 유대교에서의 제사장 계급은 제사장 가문의 맏아들로 세습되었지만, 개신교의 목사라는 교회의 지도자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한 것이다. 처음부터 선출방식이 다른 것이다.

성서적으로는 교회 세습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교회가 세습을 자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즉, 공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나 교회 등이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세운 사립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재벌이나 일반 주식회사도 개인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립자의 소유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 목사가 개인의 재산을 털어 교회를 창립하고, 열심을 내어 부흥하게 되면, 타인에게 주기 아깝게 여겨지고, 가업이라 생각되어 남이 아니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월 13일 “교회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던 대중좌담회에서 강영안 교수가 지적한 내용이다. 이런 이유라면 대한기독교감리회에서는 “교회세습방지법”도 만들었지만, 세습을 방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김진호 목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교회의 재정과 권력 문제로 원인을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초고속 성장을 이끌어온 대형교회의 경우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재정 운용이 투명하지 않은 경향이 짙으며, 따라서 “세습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임목사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세습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교회 세습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목회자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교회 결정의 민주화와 재정 운용의 투명화를 꼽았으며, 박득훈목사의 의견도 이에 일치하였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교회 세습을 방지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 1) 한국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 2) 한국 교회는 목회자를 성전을 섬기는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 3)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 4) 한국 교회는 목사 자신이 사재를 털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되도록 금지해야 한다.
- 5) 한국 교회 원로/은퇴 목사는 후임자가 될 목사들을 모두 “주 안에서 얻은 아들”로 인정해야 한다. 바울과 디모데 관계처럼.
- 6) 한국 교회는 보다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7) 한국 교회는 재정 운용을 투명화해야 한다.

교회 세습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 - 한국 교회의 세습: 그 뒤틀린 역사 -

배덕만 교수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글을 시작하며

논문을 준비하며, 국회도서관을 검색했다. “세습”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네 가지 항목으로 자료가 올라왔다. 북한의 부자세습, 재벌세습, 세습무당, 그리고 교회 세습. 물론, 네 종류의 세습 모두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다. 북한의 부자세습은 우리가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 중 하나다. 재벌세습은 이미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재벌 안에서도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세습무당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꺼리는 직업중 하나다. 정말, “팔자 사나운 사람들”에게 찾아온 무서운 운명이다.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다. 사회는 교회 세습을 종교적 타락의 명백한 증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교회 세습은 이미 한국 교회의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교회 안팎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세속언론의 거친 공격에도, 대형교회들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습을 향해 무소처럼 돌진한다. 그 위세가 자못 무섭다.

한국 교회가 ‘정상’(正常)이 아닌지 이미 오래되었다. 누가 정상인지, 어떤 것이 정상인지, 언제 정상이었는지조차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정상적인 생각과 말이 비현실적·비효율적이란 반박 앞에 말문이 막히고, 비정상적 망상과 궤변이 현실적·효율적이란 명분 속에 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세습 논쟁이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이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근거 없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란 공격을 받게 되니, 그야말로 “멘붕”이다.

이 글은 지난 40년간 한국 교회에서 진행된 세습의 역사를 더듬어 보려는 목적 하에 준비되었다. 그동안 교회 세습에 대한 많은 글들이 발표되었지만, 세습실태를 교회사적 관점에서 정리한 작업은 거의 없었다. 몇몇 신학자들이 세습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교회사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인용·분석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본격적으로 다룬 교회사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교회사적 관점에서, 지난 40년간 한국 교회에서 벌어진 교회 세습의 기록을 정리하고, 세습을 둘러싼 다양한 반대, 저항, 비판의 목소리들을 소개하며, 그런 현상들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교회 세습의 역사를 세 시기(1973-1999, 2000-2011, 2012-2013)로 구분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이 사회적 주목을 크게 받았던 해가 2000년과 2012년이었으므로, 그때를 중심으로 시기를 셋으로 나눈 것이다. 제도장치가 고장 난

열차처럼, 세습이란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한국 교회에게 이 소박한 글이 작은 경종이라도 울릴 수 있길, 그리고 세습을 막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길 바란다.

1. 1973-1999

1) 세습과 반응

한국사회에서 교회 세습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그 해에, 충현교회가 교회 개척자 김창인 목사의 아들 김성관 목사를 제4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그 결과, 교회 안팎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고, 교회 세습이 교회적·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충현교회가 한국 교회 최초의 세습교회가 아니다. 그 이전에도 주목할 만한 세습의 경우들이 있었다.¹⁾

이미, 사회선교의 개척자적 역할을 담당했던 도림교회(통합)가 1973년에 유병관 목사 후임으로 아들 유의웅 목사를 청빙했다. 1980년대에는 두 교회, 부평교회(1980, 기감)와 길동교회(1986, 합동)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드물게 진행되던 교회 세습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95년에 대구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대구서문교회(합동)와 부천의 기동교회(기감)가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들을 후임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교회 세습은 한국 교회에서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세습으로 인한 교회의 갈등이나 사회적 비난은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아들들이 대를 이어 목회하는 동안, 교회들이 크게 성장함으로써, 후임자 선택과 승계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997년에 충현교회의 후임자 선정과정에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교회 세습에 대한 대중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충현교회를 개척한 김창인 목사는 1987년에 은퇴했고, 이종윤, 신성종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연이어 후임으로 사역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고, 마침내 1997년에 김창인 목사의 아들 김성관 목사가 제4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성관 목사의 자격시비, 김창인 목사의 과도한 개입, 청빙결정과정의 불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김창인 목사와 김성관 목사의 관계가 악화되고, 1999년에 김성관 목사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결국, 3만 명이 넘던 충현교회 신자 수는 5천 명으로 급감했고, 충현교회와 교회 세습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되었다.

충현교회 사태로 교회 세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지만, 교회 세습은 계속 이어졌다. 1997년에 대표적 감리교회 중 하나인 주안교회(인천)에서 한상호 목사가 아버지 한경수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고, 1998년과 1999년에는 한국의 대표적 부흥사들인 신현균 목사(성민교회, 통합)²⁾와 오관석 목사(서울중앙침례교회, 기침)가 아들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 교회들은 은퇴목사의 아들들을 담임목사로 결정했지만, 충현교회 같은 심각한 내홍을 겪지 않았고, 사

1) 이 논문에서 언급된 교회들만 세습을 완료한 것이 아니다. 세습한 모든 교회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에 노출되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교회들만 다루었다. 참고적으로, 2012년 10월 8일에, 왕성교회 세습결정 현장에서 청빙위원장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습한 교회 수가 65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조애진·김지훈, “길자연 목사의 왕성교회 세습 현장 가보니...,” 『한겨레뉴스』 (2012. 10. 8).
2) 신영준 목사는 2005년에 교회를 떠났고, 그 이듬해에 신현균 목사도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현재 성민교회에서 신현균 목사 집안의 실질적 영향력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회적 비판도 거의 없었다.

순번	연도	교회	교단	위치	전임자/후임자	관계	목회	지위	기타
1	1973	도림교회	통합	서울	유병관/유의웅	아들	26년		
2	1980	부평교회	기감	인천	홍창준/홍은파	아들			
3	1986	길동교회	합동	서울	박만식/박주완	아들	34년		
4	1995	대구서문교회	합동	대구	이성현/이상민	아들	45년	총회장	
5	1995	기동교회	기감	경기	고용봉/고신일	아들	19년		
6	1997	충현교회	합동	서울	김창인/김성관	아들	개척	총회장	
7	1997	주안교회	기감	인천	한경수/한상호	아들	30년	감독	
8	1998	성민교회	통합	서울	신현균/신영준	아들	개척		아들사임
9	1999	서울중앙침례교회	기침	서울	오관석/오영택	아들	개척		현,하늘비전교회

2) 세습의 특징

이 시기의 교회 세습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먼저, 1990년대 이전의 한국 교회에서 세습은 예외적 현상이었다. 1970년대에 한 교회, 80년대에는 두 교회 정도가 공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세습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둘째,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세습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5년부터 5년 동안 6개 교회가 세습을 완료했다. 이것은 앞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엄청난 속도로 세습이 증가한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 세습이 교회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고, 세습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충현교회를 제외하곤, 세습결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충현교회와 성민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세습 후, 교세가 크게 성장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넷째, 이 시기의 교회 세습은 합동과 기감이 주도했다. 통합과 기침 소속 교회들도 있었지만, 앞의 두 교단과 비교할 때, 수가 적었고, 기성, 예성, 기장, 고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지역적으로, 대구서문교회를 제외하고, 절대다수가 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섯째, 세습을 완료한 교회들은 대부분 대형교회들이며, 은퇴목사가 개척했거나 장기간 목회하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일곱째, 은퇴목사들은 대부분 교단총회장이거나 감독을 지냄으로써, 교단적 지위와 영향력도 대단했다.

3) 비판과 분석

이 시기의 세습에 대한 교회적·사회적 반응은 아직 명확한 형태를 취하지 못했다. 일차적으로, 은퇴목사들이 교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교단적 차원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이런 결정을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후임목회자들 대부분이 외국유학 및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고, 목회승계 이후에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둬으로써, 개교회 안에서 아들에게 목회를 승계한 것에 큰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교회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었다.³⁾

하지만 충현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기점으로, 서서히 교회 세습에 대한 위기의식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비판의 강도나 규모가 사회적 이목을 끌 정도는 아니었지만

3) “이 외에도 목회세습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받고 있는 교회로는 예장 합동 측의 대구서문교회가 꼽힌다. 대구서문교회는 아들인 이상민 목사로 세대교체를 이뤄낸 교회이다. 길동교회, 도림교회 역시 아버지 목사에 이어 아들 목사로 담임목사직이 세습된 교회로 성공적으로 교회성장과 목회가 이뤄지고 있는 교회다.” 우은진, “세습문제의 논란과 파장,” 『한국여성신학』 제43호 (2000. 0), 78.

말이다. 이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예외적인 공적 비판은 『기독교사상』에 실린 장기천 목사(동대문감리교회)의 글이다. 그는 당시에 확산되던 교회 세습을 성직세습으로 명명하면서, 원론적 차원의 비판을 제기했지만, 유서 깊은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요,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을 지낸 인물이 교회 세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의 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후에 그런 지위의 목회자들 안에서 교회 세습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글의 의미는 남다르다. 그는 성직세습에 대해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지난 선교 1세기 동안에는 극히 드문 현상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감쪽같이, 때로는 공공연하게 성직세습을 자랑하는 예식이 벌어지고 있다. 세속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명예를 포기하고, 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데 온 삶을 헌신기로 한 성직자에게 이런 일들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잃게 마련이다. 하느님 나라의 구현을 추구하는 교회로서는 모양새가 구겨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마저 정실이 판을 친다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 북한의 김일성 부자에게나 있을 법한 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고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부끄럽고 두렵기조차 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⁴⁾

2. 2000-2011

1) 세습과 반응

한국 교회의 20세기는 교회 세습을 둘러싼 뜨겁고 치열한 논쟁 속에서 저물었다. 8만 명의 신도수를 자랑하는 광림교회(기감)가 2001년에 은퇴하는 김선도 목사 후임으로 아들 김정석 목사를 청빙할 계획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 전체가 흥역을 앓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안 것은 광림교회 신자들이었다. 즉각, 광림교회 안에서 반대목소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⁵⁾ 기윤실, 복음과상황, 뉴스앤조이, 새벽이슬 같은 단체들이 2000년 3월부터 기도회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광림교회 세습반대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여론에도, 광림교회가 세습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2000. 4. 30), 여러 곳에서 반대성명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2000년 6월 12일에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2000년 6월 30일에 기윤실이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⁶⁾ 광림교회도 침묵하지 않았다. 언론과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했다.⁷⁾ 한기총(회장 이만신)도 7월 19일

4) 장기천, “한국 교회 성직세습의 문제,” 『기독교사상』 통권 제 466호 (1997. 10), 12.

5) “후계자 확정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 홈페이지에는 반대 글들이 폭주했고, 교회 측이 홈페이지 토론방을 폐쇄하자, 이번에는 감리교 본부와 감신대 홈페이지에 반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담임목사직 세습, 사회문제로 비화. 기윤실, 감쪽같은 반대운동, 각 일간지 보도” 『기독교사상』 통권 제502호 (2000. 10), 273.

6) 감신 동문회는 교회 세습에 대해 “교회와 교역자의 위신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반교회적 행위,” “중세 교회를 타락시켰던 성직매매와 다름이 없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교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홍, “타락선거관행, 교회 세습 목회자수급문제 등 촉구,” 『기독교공보』 (2000. 6. 17). 기윤실,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0. 6. 30).

7) 9월 5일에 기윤실과 복상포럼이 마련한 세습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광림교회 교인들이 포럼진행을 반대하고, “윤실 포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낭독했고, 김선도 목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2000. 9. 7)에서 세습을 변호했고, 10월 26일에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광림교

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광림교회의 결정을 옹호했다.⁸⁾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회장 옥한흠)도 세습에 대한 (온건한) 비판적 성명서를 발표했고(2000. 9. 18),⁹⁾ 이어서 '감리교 교회세습 중지 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되어, 서명운동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수의 신학자들도 비판에 동참했다. 한국여성신학회는 “한국 교회 세습 이대로 좋은가?” 를 특집으로 학회지를 발간했으며,¹⁰⁾ 『기독교사상』 12월호에 연세대 김광식 교수가 “교회 세습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교회 세습을 강력히 비판했다.¹¹⁾ 하지만 이렇게 광림교회 세습 문제로 한국 교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구로중앙교회(기감, 베다니교회)에서는 곽주환 목사가 아버지 곽전태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광림교회도 2001년 3월 25일에 세습을 완료했다.

이렇게 교회, 교단, 교계의 강력한 저지선을 광림교회가 정면 돌파한 후, 대형교회들은 경쟁적으로 세습에 몰두했다. 교계의 지도적 목사들이 침묵한 상태에서,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대형교회들이 공모한 상태에서, 소수 학자들의 비판은 무기력했다. 강남제일교회(기침, 2003), 경향교회(고려, 2004), 분당만나교회(기감, 2004), 경신교회(기감, 2005), 대성교회(합동, 2006), 동현교회(합동, 2006), 종암중앙교회(개혁, 2007), 송의교회(기감, 2008), 금란교회(기감, 2008), 계산중앙교회(기감, 2008), 임마누엘교회(기감, 2009), 경서교회(합동, 2010), 대한교회(합동, 2011)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었다. 심지어 대학생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창립자 김준곤 목사의 사위 박성민 목사가 새 대표로 결정되었고(2002), 기독교 일간지 국민일보의 회장직도 조용기 목사의 아들들(조희준, 조민제)에게 세습되었다(2006, 2012). 세습의 영역이 교회담장을 넘어, 선교단체와 기업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큰 저항이나 분란 없이 세습이 완료되고, 성장한 교회들이 적지 않았다. 분당만나교회와 경향교회 등은 대표적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다.¹²⁾ 하지만 후보자의 자격과 결정과정의 불법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법정 소송에 휘말린 교회들도 여럿이다. 종암중앙교회와 강남제일교회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세도 급격히 약화되었다.¹³⁾ 증가성결교

회의 기획담당 박동찬 목사가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한 신학적 조명’에 대한 논찬으로 발표한 ‘아들이 후임담임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목회적 고찰’이란 글을 통해 광림교회의 부자승계의 정당성을 변호했다. 박목사의 글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 “교회와 교단 법에 위배 안 되면 세습이라 할 수 없다: 한기총, 자칭 '목회자 아들이 후임목회자 되는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뉴스앤조이』 (2000. 9.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김종희, “세습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 겸허히 수용하길: 한목협, 담임목사 세습 관련 18일 성명서 발표,” 『뉴스앤조이』 (2000. 9. 18). 이 성명서 내용 중, “4. 우리는 '담임목회직 세습' 문제에 대하여 흑백 논쟁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성경해석학적인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며 대물림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란 내용이 문제가 되어,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다. 김종희, “한목협 성명 놓고 네티즌들 다양한 반응,” 『뉴스앤조이』 (2000. 9. 20) 참조.
- 10) 이 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홍근수, “담임목사 세습제도는 기독교적인가?,” 임희숙, “한국 교회 세습문제와 그 여성신학적 성찰,” 우은진, “세습문제의 논란과 파장.”
- 11) 김광식, “교회 세습에 관하여,” 『기독교사상』 통권 504호 (2000. 12).
- 12) 2010년 9월 10일, 한국실천신학회 산하 성장동력교회위원회가 주최한 ‘성장동력교회세미나’에서, 박해경 교수(감신대 예배학)는 만나교회의 설립자 김우영 목사의 아들 김병삼 목사가 세습했으나, 매년 15%의 출석률 증가로 그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의 비밀,” 『들소리신문』 (2010. 9. 16). 또한 경향교회의 경우, “석기현 목사의 부임 후 3년간 4천여 명의 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 지난 지금 석기현 목사는 절대다수의 성도들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송경호, “경향교회, 3년간 성도 4천여 명 늘어,” 『크리스천투데이』 (2007. 9.30).
- 13) 김철영, “사태가 불거진 후 교회는 1년 만에 주일 출석 1,500명이던 교인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뉴스파워』 (2007. 7. 29).

회, 대흥침례교회, 경신감리교회 등은 무리한 세습시도가 교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경우들이다. 한편,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형제는 모두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고, 송의교회는 3대째 세습에 성공했다. 모두가 신기록이다.

순번	연도	교회	교단	위치	전임자/후임자	관계	목회	지위	기타
1	2000	구로중앙교회	기감	서울	곽전태/곽주환	아들	개척	감독	현, 베다니교회
2	2001	광림교회	기감	서울	김선도/김정석	아들	30년	감독	
3	2002	CCC	선단		김준곤/박성민	사위	개척		사위/선단
4	2003	소망교회	통합	서울	곽선희/곽요셉	아들	개척		변칙
5	2003	강남제일교회	기침	서울	지덕/지병윤	아들	개척	총회장	분쟁
6	2004	경향교회	고려	서울	석원태/석기현	아들	개척	총회장	
7	2004	분당만나교회	기감	경기	김우영/김병삼	아들	개척		
8	2005	경신교회	기감	서울	김용주/	아들		감독	분쟁
9	2006	대성교회	합동	서울	서기행/서성용	아들	39년	총회장	
10	2006	동현교회	합동	서울	예종탁/예성철	아들	37년	총회장	
11	2007	종암중앙교회	개혁	서울	조경대/조성환	아들	개척	총회장	분쟁
12	2008	송의교회	기감	인천	이호문/이선목	아들	38년	감독	3대
13	2008	금란교회	기감	서울	김홍도/김정민	아들	37년	감독	
14	2008	계산중앙교회	기감	인천	최세웅/최신성	아들	39년	감독	
15	2009	임마누엘교회	기감	서울	김국도/김정국	아들	개척	감독	
16	2010	경서교회	합동	경기	홍재철/홍성익	아들	개척	총회장	2014년
17	2011	대한교회	합동	서울	김삼봉/윤영민	사위	개척	총회장	

2) 특징

이 시기에 진행된 교회 세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세습이 매년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교회 세습은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낯익은 일상이 되었다. 둘째, 세습 교회의 수가 증가하면서, 세습하는 교단의 범주도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합동과 기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셋째, 세습한 모든 교회가 서울, 인천, 부천 등 경인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넷째, 세습한 교회들 대부분은 대형교회이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회들이다. 다섯째, 세습한 교회들은 원로목사들이 개척했거나, 30년 이상 목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섯째, 세습에 성공한 교회의 원로목사들은 대부분 각 교단 내에서 총회장과 감독을 지냈다. 심지어 한기총과 KNCC 대표회장을 지낸 사람들도 여러 명이 포함되었다. 일곱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목회자들은 교단적 배경과 상관없이, 대단히 보수적인 목회자들이었다. 여덟째, 세습의 범주, 대상, 방식에서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즉, 선교단체, 사위세습, 변칙세습, 기업세습 등 새로운 방식의 세습이 등장한 것이다. 아홉째, 세습으로 인한 갈등과 폐해가 극심해졌다. 부당한 세습이 증가하면서, 교인들의 저항도 거세졌고, 그 결과, 극단적 분열과 고통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열 번째, 2000년 이후, 교단적·사회적 차원의 세습반대운동이 빠르게 약화되었다.

3) 비판과 분석

이 시기에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진영의 주된 입장은 무엇이었나? 당시의 갈등구조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개의 상이한 입장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세습을 추진했던 교회들과 이들의 영향 하에 있던 한기총이 세습지지파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그룹은 “세습”이란 용어자체의 사용을 반대하고,¹⁴⁾ 교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세습의 장점을 강조하며,¹⁵⁾ 적절한 자격과

자질을 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⁶⁾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세습을 십자가의 결단으로 미화했고,¹⁷⁾ 성공한 세습사례를 열거하며 세습을 정당화했다.¹⁸⁾ 뿐만 아니라, 교회세습 반대운동을 개교회의 특수성과 자율권을 침해한 부당한 간섭과 월권으로 규정하였으며,¹⁹⁾ 교회 내적 문제를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교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해행위”라고 경고했다.²⁰⁾ 둘째, 기윤실 등의 시민단체들과 이들을 지지한 학자들이 세습반대파를 구성했다. 이들은 교회 세습을 성경적, 역사적, 윤리적, 선교적 차원에서 근거가 없는 반신학적 행위로 진단했다.²¹⁾ 동시에, 목회자의 과도한 독선과 욕심에서 비롯된 반교회적 행태요,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이상승배적 죄악이라고 교회 세습을 날카롭게 공격했다.²²⁾ 끝으로, 온건한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개혁을 요청하던 중도파가 있었다.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교회 세습에 비판적이었지

-
- 14) “세습이란 용어는 봉건주의사회나, 왕조시대에 사용되는 말이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현직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임자로 결정되면 세습이라고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용어 사용도 신중치 못한 것입니다.” 한기총, “목회자의 아들이 후임목회자가 되는 문제에 대한 입장” (2000. 9. 18).
- 15) “후임자가 전임자와 같은 목회철학을 가지고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증거하며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후임자가 수년간 전임자의 지도력 아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경험들은 후임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여러 성장하는 대형교회에서 아들을 훈련시켜 담임자가 되게 하는 것은 첫째, 목회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이며, 둘째, 후임자의 시행착오와 적응의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박동찬, “아들이 후임담임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목회적 고찰”(2000. 10. 26).
- 16) 박영률 목사(한기총 총무)는 2007년 10월 17일에 안양중앙교회에서 열린 예사목 주최의 ‘교회대물림’ 세미나에서, “물론 전략적, 계획적으로 아들을 후임 목회자로 삼았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아들을 청빙했는데도 이를 세습으로 매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양정지건, “한국 교회에 세습은 없다?” 『뉴스앤조이』 (2002. 10. 22).
- 17) “교회를 잘 알고 실력이 뛰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목회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무작정 축복할 수만은 없는,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다. 이 길을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걷는다면 축복할 일이다”(박영률). 신철민, “한국 교회에 세습은 없다?”
- 18) 박동찬 목사는 “아들이 담임목회자의 후임으로 선정된 예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안정감있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스왈드 스미스, 로버트 H. 술러, 오랄 로버츠, 빌리 그래함, 이호문 목사(송의교회), 흥은파(부평교회)를 성공사례로 들었다. “아들이 후임담임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목회적 고찰.” 하지만 최근에 오랄 로버츠와 로버트 술러의 자녀들이 파산함으로써, 선친들이 물려준 가업이 몰락했다.
- 19) 김선도 목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림교회 신도중에도 박사 의사 교수 등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뽑은 장로들이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므로 외부에서도 이 결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후임목사에게 기윤실이 ‘사임할 생각은 없느냐, 사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든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교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라고 기윤실을 비판하며 자신의 세습을 변호했다. 송평인, “담임목사직 세습 공방 광림교회 김선도목사,” 『동아일보』 (2000. 9. 6).
- 20)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도해야 할 일이지, 일반언론까지 동원해서 여론몰이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해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성장에도 결코 도움이 안되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한국 교회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아들이 후임목회자가 되는 문제에 대한 입장>(2000. 9. 18).
- 21) 유승원, “신분세습논란과 예수의 전복성,” 『기독교사상』 통권 552호 (2004. 12); 홍근수, “담임목사 세습제도는 기독교적인가?: 성서적, 교회론적, 신학적 일고,” 『한국여성신학』 제43호 (2000. 9); 김명용, “목회자의 세습에 대한 신학적 비판,” 『뉴스앤조이』 (2000. 10. 13); 주재용, “한국 교회 세습, 그 비판과 극복의 길,” 『뉴스앤조이』 (2003. 4. 14).
- 22) “목회자의 세습은 그 자체가 불의이다. 신앙고백이 규정한 공교회 정신과 충돌하고 합당한 담임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나라의 거울로서의 교회의 참모습을 훼손하므로 성장과선교에도 치명상을 입힌다.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세습과 전별금 같은 비난 받을 불의한 일을 청산하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김용인, “세습과 전별금에 휘청거리는 한국 교회” 『뉴스앤조이』 (2011. 4. 26).

만, 교회 세습을 반대할 명백한 신학적 근거가 없고,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교단 혹은 법적 통제를 지나친 간섭으로 비판하면서, 개교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절제해 달라고 요청했다.²³⁾

그렇다면, 이 시기에 세습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것은 1997년을 기점으로 세습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즉, IMF 이후, 국가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히 교회성장이 멈추고 교세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무수한 신학교졸업생들 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세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진 것이다. 대형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와 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할 최선의 선택으로 부자세습을 추진·승인하는 반면, 반대파들은 공평과 정의를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²⁴⁾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든 천민자본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즉,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한국개신교회가 이런 시대적 흐름에 가장 탁월하게 적응하고 기여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급성장은 한국 교회의 대형화를 초래했고, 결국, 양적 성장이 시대적 에토스가 되면서, 물질적 성공이 축복의 가시적 징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빈과 희생이라는 고귀한 기독교적 가치는 비현실적 이상으로 멀어지고, 철저하게 현실적 논리와 이기적 욕망이 목회의 핵심원리로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이런 정신에 사로잡힌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목회적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⁵⁾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습과 원로목사제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교회 세습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장기간 목회했던 목사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자신들이 성취한 물질적·사회적 특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은 이기적 욕망이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부추기고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원로목사제도다. 따라서 교회 세습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원로목사제도부터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 세습 문제에 대한 싸움을 '뒤로하여야 한다.' 즉 극복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교회가 점차 비대해 지면서 만든 공로목사 또는 명예목사제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는 원로목사 제도 등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

23) “기독교단체들이 지금까지 소위 ‘담임목사직 세습’문제가 얼마나 해로운 발상인가를 한국 교회를 향해 경종을 울리는데 광야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심판자적 자세로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후의 문제는 해당 교회의 신앙양심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소위 말하는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0. 9. 18).

24) 김광식, “교회 세습에 관하여,” 『기독교사상』 통권 504호 (2000. 12), 210.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연구로는 김명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2012년 가을)이 있다. 김명배는 대형교회의 교회 세습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의 재벌기업의 비민주적 지배 구조가 한국 교회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ibid., 61).

25) “대형교회들이 지교회를 분립하는 것도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닮았고, 교회 세습마저도 재벌의 행태를 닮았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70%에 가까운 비율이 교회법상 하자가 없다면 교회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 절차상의 합법성 여부에 교회 세습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의 독점적 소유와 배타적 특권이 문제이고, 교회도 마치 하나의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의식이 문제다.” 최형묵, “참 ‘교회됨’의 신학적 이해” 『뉴스앤조이』 (2004. 2. 3).

는 한국 교회의 제도화를 고착화시키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한다.²⁶⁾

동시에, 교회 세습은 담임목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세습방지는 더 이상 개인적 양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목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효율적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삼중 대표(대전청년아카데미)는 “임기제, 정관작성, 연봉제, 사무총회 권한강화로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지배하고 왕이 되어 우상처럼 섬겨지는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²⁷⁾

3. 2012-현재

1) 세습

지난 1년 동안, 4건의 주목할 만한 교회 세습이 이루어졌다. 제일성도교회(합동)가 은퇴하는 황진수 목사 후임으로 진웅희 목사를 청빙했다. 진 목사는 황 목사의 사위였다. 2011년에, 제일성도교회는 진웅희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하고, 후보에 청빙목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진 목사의 자격시비가 불거지면서 내분과 비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임시당회장뿐 아니라 황 목사와 교인 대부분이 진 목사 청빙을 반대하지 않고 있어서, 또다시 세습 절차를 밟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²⁸⁾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도덕성과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같은 시기에, 광명동산교회(합동)에서 교회 세습이 시도되었다. 이 교회를 개척했던 최성용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새 담임목사로, 자신을 원로목사로 추대하려 했다. 하지만 취임예배에 아들 최정환 목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교회는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후임자 결정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최성용 목사는 총회에서 제명되고, 아들의 청빙도 취소되었다. 이후 이수웅 목사가 교회에 의해 신임목사로 결정되었지만, 원로목사 측과 갈등이 벌어졌고, 교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과 법정싸움까지 벌어졌다. 갈등과 분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²⁹⁾

이런 상황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왕성교회(합동) 길자연 목사와 성남성결교회(기성) 이용규 목사가 연속적으로 부자세습을 성사시켰다. 왕성교회의 경우, 2003년에 지교회 형식으로 과천왕성교회를 세웠고, 2005년부터 길자연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했다. 왕성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공동의회를 열어, 서울왕성교회와 과천왕성교회의 합병을 결의하고, 길 목사 부자를 동사무사로 임명했다. 일부 교인들이 회의소집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회의는 강행되었고, 거수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다.³⁰⁾ 왕성교회는 10월 8일에 다시 공동의회를 열고,

26) 홍근수, “담임목사 세습제도는 기독교적인가?” 『한국여성신학』 제43호 (2000. 9), 72.

27) 박삼중, “주체가 노예로 전락한 세습사회,” 『뉴스앤조이』 (2011. 12. 21).

28) 임안섭, “제일성도교회, 사위 세습 제동” 『뉴스앤조이』 (2012. 10. 20).

29) 광명동산교회사태에 대해선, <http://blog.daum.net/mranatha/3502> 참조.

30) “투표 결과, 교인 대다수가 공동의회 연기에 반대해 회의는 계속 진행됐다. 원로목사 추대와 담임목사 임기 연장 건은 눈을 감고 거수로 투표했다. 두 안건 모두 참석자 414명 중 2/3 이상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에 손은 든 사람은 2명 정도였다.” 김은실, “왕성교회 세습 본격화하나,” 『뉴스앤조이』 (2012. 3. 25). 왕성교회 측이 주장하는 평균 예배 출석인원은 1만 명이 넘는다.

길요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길자연 목사를 원로목사로 결정했다.³¹⁾ 성남성결교회는 2013년 1월 20일 사무총회를 열고 세습을 확정했다. 성남성결교회는 이용규 목사 아들 이호현 목사를 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사무총회에 상정했고, 사무총회에 참석한 교인 211명이 만장일치로 청빙에 찬성했다. 세습결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던 왕성교회와 달리, 성남교회는 이 과정을 세상에 공개했다. 더 이상, 세습은 음지에서 결정되는 ‘짹짹한 비리’가 아니다.³²⁾ 두 교회 모두, 자신들의 결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후임목사의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며,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고 강변했다.³³⁾

순번	연도	교회	교단	위치	전임자/후임자	관계	목회	지위	기타
1	2012	제일성도교회	합동	서울	황진수/진윙희	사위	개척		분쟁
2	2012	광명동산교회	합동	경기	최성용/최정환	아들	개척		분쟁
3	2012	왕성교회	합동	서울	길자연/길요나	아들	39년	총회장	변칙
4	2013	성남성결교회	기성	경기	이용규/이호현	아들	개척	총회장	

2) 저항

지난 10년과 달리, 2012년부터 진행된 세습은 교회 안팎에서 심각한 저항과 비난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세습에 대한 관심과 저항을 촉발시킨 사건들을 살펴보자. 먼저, 2007년에 부당한 교회 세습으로 한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김창인 목사(충현교회 원로목사)가 갑자기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2012년 6월 12일에 열린 원로목회자 위로예배에서 성명서를 통해 “충현교회 제4대 목사를 세우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목회 경험이 없고, 목사의 기본 자질이 돼있지 않은 아들 김성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해 위임목사로 세운 것은 내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였다”고 고백한 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회개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의 공개적 참회가 교계 및 일반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되면서,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가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달 후인 7월 19일에 한기총은 “후임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최근 K모 원로목사가 아들 목사의 문제로 한풀이 같은 발언을 하여 교계에 물의를 빚고 있으나, 이는 해당교회와 아버지와 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결코 한국 교회 전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김 목사 참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후임으로 세워질 분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조화롭게 맞고, 교회 후임 목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빙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될 것이며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광된 징표인 것이다.”라고 세습을 두둔했다.³⁴⁾ 이에 대해, 기윤실은 2012년 7

31) 이날 공동의회에서 청빙위원장은 “세습은 교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의 승계이며, 부의 세습이라는 건 세속의 눈으로 본 것일 뿐입니다. 650개가 넘는 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승계했고 99%가 성공했습니다.”라고 세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길자연 목사의 왕성교회 세습 현장 가보니...,” 『한겨레뉴스』 (2012. 10. 8).

32) 성남성결교회 세습결정과정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92>

33) 예를 들어, 성남성결교회 이용규 목사는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세습이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세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실, “성남성결교회 만장일치로 교회 세습 승인,” 『뉴스앤조이』 (2013. 1. 13).

34) 심지어, “한기총은 인본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인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재단하고 세상 언론에 유포하며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수의 진보적 세력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전체가 오해와 편견 속에 복음의 길이 막혀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한기총은 명실상부 한국 교회의 대표적 기관으로서 추후 세습, 승계를 운운하며 기독교의 법과 질서를 뒤흔드는 잘못된 세력 앞에 55,000 교회와 10만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며,

월 24일에 “한기총의 세습옹호 성명서에 대한 기윤실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한기총의 입장을 비판했다. 한기총도 7월 26일에 “담임목사 청빙 관련 기윤실 입장 표명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이란 제목의 반박성명서를 발표하여, 기윤실의 비판에 반격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교회 세습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이 2012년 8월 28일 “담임목사직 세습금지 입법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자,³⁵⁾ 2012년 9월 1일에 감리교 세습의 핵심인물인 김홍도 목사가 『조선일보』에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란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세습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반대세력을 정죄했다.³⁶⁾ 9월 5일,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홍도 목사 광고사건을 “영적 치매”로 비판했고, 김홍도 목사가 김동호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렇게 상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9월 25일, 정동감리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입법의회에서 ‘세습금지법’이 통과되었다.³⁷⁾ 이 법안에 대해 교회와 사회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고, 하나같이 한국 교회사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치하했다.³⁸⁾ 이에 자극받아, 예장통합 평양노회(10. 22-24)도 ‘교회 세습방지헌의안’을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11월 2일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가 공식 출범했으며, 11월 20일에 이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KNCC도 세습근절을 다짐하는 총회선언문을 채택했다. 침묵하던 학자들도 발언대에 나섰다.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의 제26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2013. 1. 18)에서, “한국 교회 영성과 세습”이란 주제 하에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발표자들은 대형교회의 세습이 성경적, 신학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³⁹⁾

3) 특징

먼저, 세습을 강행한 교회들 중 예장합동 교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둘째, 그동안 합동과 세습을 양분했던 감리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는 반면, 성결교회(기성)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셋째, 예전보다 세습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려왔다. 현재까지 그 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이다. 넷째, 교단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목사들의 교회가 세습에

세습반대운동을 향해 공개적으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선언문의 전문은 한기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ck.or.kr/>

35) 이 논평에서, 미래목회포럼은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밝혔다. ①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혈연으로 담임목사가 결정되는 것 ②교회의 정당한 평가와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가 결정돼야 하는 교회법을 어기는 것 ③다른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불공평한 일 ④구약의 제사장직 대물림과는 다른 것 ⑤큰 교회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해 자녀에게 특혜를 주어도 된다는 생각은 비신앙적 발상. 이대웅, “담임목사직 세습금지 입법지지” 미래목회포럼 논평 『크리스천투데이』 (2012. 8. 28).

36)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아들이 담임자가 되면 ‘세습’이라 공격하고 비난한다...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세습하듯 자격이 있건 없건 물려주고 물려받는 교회는 없다...자격도 없는 아들을 억지로 담임목사 시키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받아주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느냐...기업의 주인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듯, 교회 건물이나 현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 건물이나 재산은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이고, 생활비도 교회가 책정해 주는대로 받는 것이지 담임목사가 봉급을 제 맘대로 정할 수 없다...그런데 좌파들은 북한의 3대 세습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정당한 후임자는 세습이라 비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홍도,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조선일보』 (2012. 9. 1), 22.

37) 총투표자 390명,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

38) “(사실) 감리교 ‘세습금지’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길,” 『서울신문』 (2012. 8. 28); 김범수, “감리교 ‘목회 세습 금지’ 확정,” 『한국일보』 (2012. 9. 25); 김지훈, “감리교 ‘교회 세습’ 안한다,” 『한겨레』 (2012. 9. 25); 정형권, “감리교 ‘세습금지법’ 통과,” 『기독신문』 (2012. 9. 25).

39) 이날 박봉배, 오영석, 손봉호, 김영한 교수가 발표했다.

성공함으로써, “한기총은 세습 왕국”란 오명을 이어갔다.⁴⁰⁾ 다섯째, 세습한 교회들은 은퇴하는 목사가 개척했거나 40년 가까이 목회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망각했다. 그런 힘을 배경으로, 그들이 세습을 강행한 것이다. 여섯째, 세습을 둘러싼 갈등구조가 더욱 명확해졌다. 한편에선, 대형교회와 한기총이 세습세력을 형성했고, 반대편에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중심의 저항세력이 진영을 구축했다. 일곱째, 세습반대진영의 구성원이 변했고, 강화되었다. 감리교회가 교단적 차원에서 세습을 금지한 것, 통합 소속 노회가 동조한 것, 김동호 목사가 전면에서 나선 것, 김창인 목사가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 일군의 저명한 학자들이 비판적 소리를 낸 것 등이 저항세력의 전력증강에 큰 보탬이 되었다. 여덟째, 세속언론이 교회 세습에 관심을 보이며, 반대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회 세습은 더 이상 개신교의 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쟁점이 되었다.

4) 비판과 분석

세습을 강행한 사람들은 이전에 세습한 사람들의 논리를 반복했다. 이들은 계속 ‘세습’이란 용어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그런 용어는 북한의 경우처럼,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경우만 해당되고, 자신들처럼 교단법을 준수하여 찬반투표를 통해 후임자를 결정한 것은 세습이 아니라, 후임목사 청빙이라는 것이다.⁴¹⁾ 동시에, 목회자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고, 교인들이 그를 목회자로 청빙하고자 한다면, 아들 신분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²⁾ 끝으로,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 형편과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들의 과도한 간섭과 월권이며,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좌파세력이라고 규정했다.⁴³⁾

이 같은 세습옹호론에 대해, 세습반대론자들은 대형교회 세습을 “추잡한 세습”으로 규정하고, 맹렬하게 비판했다.⁴⁴⁾ 세습반대론자들도 모든 세습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아버지 뒤를 잇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장려할 ‘미담’으로 언급했다.⁴⁵⁾ 문제가 되는 것은 부와 명예, 권세가 보장된 대형교회 담임목사직에 검증되지 않은 아들을 아버지의 힘으로 무임승차시킨 경우였다. 이런 견해는 세습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세습 반대 진영에서 지배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성돈 교수는 한국 교회 종교시장의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형교회의 세습도 대형교회 세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명 30명 되는 작은 교회에도 부임하려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른다. 이런 교회에도 담임으로 가기 위해서 꽤 복잡한 이해타산이 얽히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 목회 세습은 대형교회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 간판이 걸려 있는 이상 목회세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회세습은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40) 한겨레 조현 기자는 성남성결교회 세습결정을 다룬 기사 제목을 “한기총은 세습왕국”이라고 붙였다. 『한겨레』 (2013. 1. 24).

41) 한기총, “후임 담임목사 청빙,” (2012. 7. 19).

42) 김석중, “한기총 회장 출신 목사들, 줄줄이 교회 세습,” 『경향신문』 (2013. 1. 21).

43) 김홍도,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44) 최중운, “추잡한 세습, 아름다운 세습,” 『뉴스앤조이』 (2012. 1. 8).

45) “물론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 모든 세습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골이나 오지에서 평생 섬긴 교회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아들이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감동 그 자체다.” 유영, “능력자 투표로 뽑았으니 세습도 문제없다?” 『뉴스앤조이』 (2012. 1. 6).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만 있는 목회자들은 좌절에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다.⁴⁶⁾

이런 현실의 대안으로, 두 가지 대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 세습의 원인을 목회자들의 신학적 빈곤으로 진단하고, 교회론의 정립과 교육을 근본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전국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목회자의 가장 부족한 점이 ‘신학적 깊이’(38.6%)로 드러났다. 결국, 교회 세습은 ‘안정적 성장’이라는 현실적 이유와 ‘왜곡된 교회론’이라는 신학적 빈곤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신학생, 교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교회론 교육이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다.⁴⁷⁾ 둘째, 이미 한국 교회의 부자세습은 개인의 양심이나 교회의 합리적 결정에 의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감리교 ‘세습방지법’ 같은 구체적 법안을 교단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기 교수는 교단헌법에 세습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⁴⁸⁾ 김영한 교수도 “감리교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은 장로교와 더불어 한국 개신교 모든 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⁴⁹⁾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1973년에 교회 세습을 이룬 도림교회부터 2013년에 세습을 완료한 성남성결교회까지, 40년간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회 세습 사례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각 시기마다 한국 교회의 세습과 이에 대한 저항운동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고, 개인적 견해를 첨가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교회 세습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한국 교회의 세습은 1973년부터 공식 기록이 나타나지만,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2001년에 광림교회가 세습에 성공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이것은 IMF로 한국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 교회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 1970년대에 목회를 시작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의 은퇴시기가 집중된 것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1997년 이후로 교회 세습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교단적으로, 교회 세습에 성공한 교회들은 전 교단에 두루 분포되어 있지만, 합동과 기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합동과 기감의 신학적 차이가 분명하지만, 기감에서 세습을 감행한 목회자들은 정치적·신학적 측면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결국, 한국 교회에서 교회 세습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기총이 교회 세습을 옹호했다는 것도 이런 사실을 지지하는 증거다.

지역적으로, 교회 세습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곤, 경인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대형교회가 경인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겠지만, 대체로 수도권현상/도시현상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유일하게 비수도권지역의 세습사례로 알려진 대구서문교회도 농어촌지역이 아니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같은 지방의 대도시들에서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46) 조성돈, “세습 반대 운동, 더 불을 지펴야 한다,” 『뉴스앤조이』 (2012. 10. 4).

47) 이용필, “목회자도 교회 세습·양극화에 부정적” 『뉴스앤조이』 (2013. 2. 1).

48) 임안섭, “세습반대운동연대 출범, 교단 총회에 금지법 통과되도록 할 것,” 『뉴스앤조이』 (2012. 11. 1).

49) 김영한, “교회세습금지의 신학적 근거” 『크리스천투데이』 (2012. 10.1).

교회 세습이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목회자적 측면에서, 세습을 시도·완료한 교회들은 은퇴하는 목사들이 개척했거나,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세를 크게 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형교회 담임목사뿐만 아니라, 교단의 총회장이나 감독을 지냈다. 결국 그들은 자기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교단차원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권세와 지위가 교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든 현실적 동력이었다.

다음으로, 교회세습반대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2001년에 광림교회가 세습을 시도했을 때, 최초로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고, 2012년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부활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자세습을 완료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저항과 비판이 없었다. 결국 주목할 만한 저항운동이 꾸준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교회들이 파죽지세로 세습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역적으로, 교회세습반대운동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이 서울에 집중되었고,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세습사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방에도 대형교회들이 존재하며, 세습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교회세습 반대운동의 범주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운동의 근본적 한계로 보인다.

주체적 측면에서, 그동안 반대운동이 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복음과상황, 뉴스앤조이 등 소수의 복음주의 단체들에 한정되어 왔다. 물론, 2000년에 감리교 내부에서 몇몇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좀처럼 감지할 수 없었다. 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곤, 교회의 관심과 참여가 너무 미약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참여도 너무 부족했다. 결국 이 교회세습반대운동이 보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소수의 주변단체들만의 운동으로 머문다면, 기대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단적으로, 교회 세습은 기감과 합동이 주도했다. 그런데, 최근에 기감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교단적 차원의 교회세습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향후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자극과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합동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합동은 한국 교회 최대교단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세습교회를 배출했다. 합동 측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이 운동의 장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반대운동은 합동에 좀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신학적으로, 교회 세습에 대한 학계의 반응이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물론, 몇 차례의 교회 세습관련 세미나와 포럼이 개최되어 몇몇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고, 학술지와 잡지에 세습에 대한 비판적 글들이 수록되기도 했지만, 40년의 교회 세습역사에 비해, 그 양과 질은 대단히 실망스런 수준이다. 아직까지 교회 세습에 대한 제대로 된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이 출판되지 않았으며, 수많은 기독교관련 학회들에서 이 문제를 공식 주제로 삼은 적도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이런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다.

운동방법론 측면에서, 그동안 반대운동은 성명서, 기도회, 포럼/세미나, 반대시위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개된 반대운동이 지난 20년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단 한 차례도 대형교회 세습을 막지 못했다. 이것은 기존의 운동방식과 전략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고민을 촉구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힘든 싸움이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럼에도 이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보다 지능적·창조적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왜소해 보일 때가 있다. 성경적 이상과 비정한 현실 사이에서, 기가 죽을 때가 있다. 기도도, 말씀도, 심지어 성령마저 대형교회, 정치목사, 교권 앞에서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면,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낙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뿐이다. 십자가를 지고 오른 골고다언덕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세습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현요한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대형교회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들 중 상당수가 담임목사직 세습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CBS TV 뉴스는 한국의 굼직한 대형교회들의 담임목사직 세습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보도한 바 있다.¹⁾ 그런 사례들 외에도 교차 세습, 격세 세습, 분리 세습, 사위 세습, 친인척 세습 등 여러 가지 변칙적인 세습의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²⁾ 필자도 보도나 품문으로 두 세 교회의 세습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였다는 사실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는 마치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일종의 기독교계의 트렌드요 관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저 어쩌다 한 교회가 세습을 한 상태이고, 그 교회도 세습 자체를 굳이 정당화하려는 입장이 아니라면, 필자는 이런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형교회들마다 너도 나도 세습을 감행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신문광고까지 내고 있으며, 아직 세습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세습을 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있다는 소식은 같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지도자로서 부끄러움과 더불어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게 한다.

이 글에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영광과 특권을 세습”하는 일부 대형교회들의 세습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지 모든 대형교회들이나, 모든 세습에 대하여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³⁾ 또한 사정이 어려워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과 도시 미자립 교회를 대를 이어

- 1) CBS TV 뉴스에 의하면 1997년 충현교회가 한국 대형교회 최초로 원로목사의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광림교회가 세습을 시행하였고, 세계 최대 감리교회인 금란교회도 세습을 단행하였다. 인천송의교회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그리고 다시 손자로 담임목사직이 세습되었다. 또한 인천부평교회, 주안감리교회 등 상당한 규모의 대형교회들이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하였다고 한다. 신정동 대한교회는 아들이 아니라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R357t5vptPU>, [2012. 6. 13 게시]
- 2) 비슷한 규모의 교회의 목회자들끼리 서로 자신의 아들을 상대방 교회의 후임 목사로 보내는 교차 세습, 할아버지가 하던 목회직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격세 세습, 아버지 목사가 개척해서 세운 여러 곳의 목회지 중 한 곳을 떼어 맡기는 분리 세습, 아들이 없는 경우에 사위에게 물려주는 사위 세습, 혹은 광범위한 친인척 관계의 특혜를 이용한 친인척 세습 등 변칙적인 세습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김회권, “교회 세습이 부당한 신학적 근거,” 『목회와 신학』, 282호, 2012년 12월, 156.
- 3) 김회권은 영광과 특권의 세습과 고난과 사명의 세습을 구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광과 특권의 세습임을 잘 지적하였다. 그는 여수 공생원, 가나안농학교, 빌리 그래함 선교센터, 라브리 공동체 등은 영광의 특권의 세습이 아닌 경우로 간주한다. 김회권, “교회 세습이 부당한 신학적 근거,” 160 이하. 빌리 그래함 선교 센터 등 세습을 통하여 오히려 잘된 외국의 사례들이 간혹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김회권도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같은 글, 159.

섬기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경우들은 세습이 아니라, 대를 이은 헌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교회 세습이 옳지 않다는 조직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미 상식처럼 된 일에 관하여, 세속 정치나 기업에서도 세습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새삼스럽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신학적 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운 일이다. 신학대학의 어느 동료 교수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슨 대단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것을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매우 정곡을 찌른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일을 “은혜스럽게 하자”고 “교회의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은혜스럽게 하자,” 혹은 “교회의 방식으로 하자”는 말은 상식과 세속적 표준을 초월해서 그것보다 뛰어난 일을 하자는 것이지, 상식이나 세속적 표준보다 못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상식과 세속적 표준보다 못한 일을 은혜와 교회의 이름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1. 교회론, 특히 교회의 주권의 관점에서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문자적 의미는 ‘부름을 받은 무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여진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 화목케 되어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요 새로운 존재 방식이다(엡2:11-22).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성도들,’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엡2:19) 혹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고전3:9) 등으로 불려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하여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벧전2:9).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교회는 유대인과 같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성별과 빈부와 귀천을 뛰어 넘는 만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한 신약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은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고전12:27, 엡1:23).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요(엡1:22), 신자들은 이 몸의 지체들이다(고전12:27).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 이 은유는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묘사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제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와 연합 등을 함께 보여준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당연히 교회의 주(主)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값으로 산 것’(고전6:20)이 된 존재들이다.

교회를 이렇게 이해할 때,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세습은 교회의 주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특정 목회자와 그 가문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습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회가 주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의하여, 그들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다스려지는 형편이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세습은 아버지가 당대에 교회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것을

자식에게로 이어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교회 세습은 대부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이끌어 온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이기 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자발적 결사(結社)(voluntary association)⁵⁾ 혹은 심지어 하나의 거대한 사설 기업체처럼 보인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며, 그들은 대개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제공하는 설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 프로그램의 유익을 누리며, 자발적으로 헌금을 바친다.⁶⁾ 사실 그러한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카리스마적인 목회자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또한 쉽게 망각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의 무수한 작은 교회들의 희생과, 열성적인 신자들의 헌신에 의하여 성장되었음도 함께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그 목회자는 그 교회의 성장이 자신이 자수성가하여 이룩한 자신의 공적이요,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느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아깝고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협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표방하고, 그리스도를 설교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들의 외형적 형태는 자발적 결사라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겸손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진정 주님의 종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눅17:10)”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 임기를 마쳤으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습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목회자는 자신들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게 주어지는 신자들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의 군주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 권력을 당대에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세습을 감행하게 되는 모양이다.

2. 교회의 표징들의 관점에서

예로부터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교회의 '표징(marks)'이라는 용어로 신앙고백에 담아 표현하여 왔다.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 형성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도신조>는 교회에 관하여 “거룩한 공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또한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확정되어 발표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⁷⁾ 교회에

4) 김명용도 교회 세습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명용, “목회자의 세습에 대한 7가지 신학적 비판,” 『복음과 상황』, 2000년 11월호, 54.

5) Tönnies의 용어를 적용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Gemeinschaft이기 보다는 Gesellschaft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참조. Ferdinand Tönnies,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홍성모 역, 『세계사상전집』 제 30권 (서울: 삼성, 1982). 교회가 유럽식의 국가 교회가 아니라 자유 교회인 경우에 교회가 이 양면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특정 지도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왜곡이고 타락이다.

6) 밀리오리는 현대 북미 교회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그것이 자수성가한 ‘자발적 단체(voluntary society)’의 모습임을 지적한다. 자수성가한 유형의 사람들이 속하려 하는 단체는 ‘자발적 사회’, 곧 그것이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 유용할 경우에만 소속되어 머물러 있으려 하는 모임이다.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69.

7) 이것은 통상 명칭으로는 <니케아 신조>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조의 본문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성령론과 교회론 등 일부 새로이 첨가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후대 교회는 그것이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으므로 통상 <니케아 신조>라고 불렀다. 그러나 325년에 선포된 역사적 <니케아 신조>와는 다르기에 학자들은 이것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른다.

관하여 네 가지 표징을 고백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one), 거룩하고(holy),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인(apostolic)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본성을 가진다.⁸⁾ 이것은 서술적인(indicative)인 선언이며 고백인 동시에, 명령적인(imperative)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거룩하다(고전1:2).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 받는다(벧전1:16).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표징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교회에 부여된 서술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지상의 역사적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신적 근거를 가지는 동시에 여전히 유한하고 죄인인 인간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 네 가지 표징들을 자신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이 표징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특징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회의 세습은 바로 이 표징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1) 교회 세습은 교회의 일치성을 훼손한다.

교회는 하나이다(엡4:4-6).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 교회의 하나됨은 새로운 교제의 특징이다.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존재하고 여러 지교회들과 여러 교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이다. 교회의 일치성은 획일적인 일치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이다. 교회의 일치성은 여러 다른 인종, 성별, 신분,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루는 일치성이다. 그것은 위계질서적이고 수직적으로 강요된 일치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평등한 지체들이 이루는 일치성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공동체의 일치를 반영한다(요17:21). 교회의 일치성은 무형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교회에도 해당된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3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성에 대하여 말했을 때, 그는 분명히 유형교회인 고린도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⁹⁾ 교회는 이 일치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엡4:3).

그런데 교회의 세습은 사회가 무어라 하든, 다른 교회가 어찌 되든 자신들의 교회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개교회주의적 발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논할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포함하는 교회 전체의 일치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교회의 세습은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야기한다. 세습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발생한다. 겉으로는 평화스럽고 정당하게 세습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에도, 부당한 설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세습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간혹 일치하여 세습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획일적으로 요구되는 일치성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들은 담임목사직의 세습이 원로목사 은퇴 후에 교회의 분쟁과 분란을 해소하는 방책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이 드러났다. 한국 대형교회 세습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충현교회의 경우

8) 김명용도 교회 세습에 대한 신학적 반대를 <사도신조와>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교회의 표지에 대한 고백을 근거로 논하였다. 김명용, “목회자의 세습에 대한 7가지 신학적 비판,” 50, 52.

9)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830.

에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나서도 분란이 계속되었으며, 급기야 원로목사는 자신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공개 고백하기까지 하였다.

사실 은퇴한 원로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그리고 그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 분쟁의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중하게 후임자를 선정하고, 원로목사는 은퇴 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깨끗이 모든 교회 일에서 물러서며, 후임 목사도 원로목사를 존경하고 그의 업적을 존중하며 화합의 목회를 지향한다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아름답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2) 교회 세습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는 교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우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실에 근거한다.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고전1:2)”이라고 불렀다. ‘거룩함’이란 본래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요, 그것이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성격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참여함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함은 그것이 죄인들과 낯선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주저함 없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죄인들을 의롭다고 받아 주시며 사랑하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이다.¹⁰⁾ 교회의 거룩성은 무형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교회에도 해당된다. 유형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원리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권을 목표로 삼고 이루어 간다는 윤리적 의미에서 그러하다.¹¹⁾ 교회는 이 거룩함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벧전1:16).

교회의 세습은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교회의 세습은 교회의 목회직이 무슨 세속적인 권력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목회직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직무이지 이권과 권력이 아니다. 그러나 세습은 목회직이 마치 세상의 전제 군주가 왕권을 세습하거나, 세상의 대기업 총수가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경영권을 세습해주는 모습을 방불케 한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 그러한 왕권 세습이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 일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 교회의 세습은 교회의 거룩성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한다. 교회를 세습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은 속됨으로 왜곡되고, 거룩한 섬김의 직무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 왜곡된다.

3) 교회 세습은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한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본래 catholic인데,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10)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288.

11)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832.

것이 아니라, 헬라어 kata와 holos의 합성에서 온 말로서, 전 세계에 있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며, 이는 교회의 전체성, 우주성 혹은 보편성으로 이해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이니라”고 하였다. 교회 안에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언어, 모든 성별, 모든 신분, 모든 연령, 모든 경제적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전체로서 교회는 그들 모두에게 보편적인 교회이며, 모두에게 공공성을 가지는 공교회(公教會)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며(예를 들어 엡3:21),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 된다(예를 들어, 계2:1, 8, 12 18 등). 그러므로 교회는 한 지역에 존재하더라도 그 성격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며 공공적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인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특정인들의 이익과 권력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다.¹²⁾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하는 말이나 일의 공공성(publicness)과 연결된다. 빈센트(Vincent of Lerins)는 보편성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믿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¹³⁾

그러므로 교회 세습은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교회를 사유화(私有化) 혹은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하는 것이다.¹⁴⁾ 교회의 사유화란 교회라는 공적 단체를 사적인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다. 세습은 그러한 사유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더라도 교회의 모든 재산의 명의를 교회가 가입한 유지 재단 혹은 교회가 설립한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재산권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교회들에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재산권의 실제적 행사는 카리스마적인 담임목사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적 절차들과 장치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들의 실제 운영은 거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담임목사의 뜻에 의해 좌우되고 만다. 교회 재산의 명의를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사화의 모습은 교회를 공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적 사상이 팽배한 현대 교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일이며 누군가가 외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 신앙은 우리들만의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공공성 혹은 공교회성을 훼손한다.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것은 자신들만의 영역의 일이므로 외부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12) 벨코프는 교회의 보편성은 일차적으로는 무형교회에 적용되지만, 부차적으로는 유형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책, 833.

13)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289에서 재인용.

14) 교회 세습에 대한 신학적 비판의 주류는 바로 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김근상은 교회 세습이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는 것이며, 에덴 동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선악과를 따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한다. 김근상, “왜 오늘날 교회의 공공성이 문제가 되는가?” 『기독교사상』, 2013년 1월호, 10-14. 김경재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네 가지 표징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표징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그 가운데 그 역시 개교회주의와 교회 세습을 교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사유화라고 비판한다. 김경재, “개신교회의 공교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의미,” 『기독교사상』, 2013년 1월호, 16-25.

외부에서는 교회 세습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며 선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는 더욱 잘 성장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공적 영역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와 신뢰를 더욱 상실하게 만들고, 복음의 보편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그 교회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상실한 “그들만의 교회”가 되고 말며, 다른 교회들 즉, 전체로서의 교회는 신뢰성을 더욱 상실하고 오히려 선교의 장애를 겪게 된다. “그들만의 교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담임목사에게 집중됨으로써 결국 교회가 단순히 교인 각자의 정신적 사사화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특정인이나 특정 가문을 위한 사사화의 길에 빠지게 만든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한 개교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4) 교회의 세습은 교회의 사도성을 훼손한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하였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 준 복음에 기초하여 있으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동방 정교회나 로마 천주교회에서 사도성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통하여 내려온 성직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였다.¹⁵⁾ 교회의 사도적 계승은 그러한 외적 행위나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과의 내용적 연속성, 초기 사도적 교회와의 내적 사명과 연속성과 통일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초기교회에서도 사도들이나 선임 주교의 안수 없이 교직자들이 세워졌던 일들이 있었다.¹⁶⁾ 또한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주장이나 로마 교회의 수위권은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다. 또한 사도성은 단지 안수 받은 주교나 사제들에 의해서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고 세워가는 전체 공동체에 의해 계승된다.¹⁷⁾ 사도성은 사제나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통해 계승된다. 모든 신자들은 세상을 향해 파송된 복음의 증인들이다.

교회 세습은 이러한 교회의 사도성을 훼손한다.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마치 어느 특정 목회자의 가문만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만든다. 그리하여 교회의 사도성은 특정인의 가계 연속성 안으로 해소되어 버린다. 교회는 특정 가문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아서 전파한 사도들과의 내적 연속성 안에 있다. 그러나 교회 세습은 결과적으로 특정 가문의 목회자만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듦으로써, 교회를 사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가문의 단체로 변질시킨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런데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근본적인 표징들을 훼손한다. 요컨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심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교회의 주인은 카리스마적인 담임목사도 아니요, 스스로 무

15) 칼 바르트는 사도성을 사도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도들의 지도와 가르침과 표준적 권위를 따르고 그들과 조화되게 되는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1 (Edinburgh: T & T Clark, 1956), 714.

16)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V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176-177. 김균진은 선임주교의 안수는 사도들과의 사명과 연속성, 사도적 정통성, 교회의 내적 통일에 대한 상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도적 요소들에 대한 보증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같은 책, 176.

17) 같은 책, 178.

순 기업체 대주주들로 구성된 이사회처럼 생각하는 장로들도 아니다. 또한 교인들의 총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겸손하게 그야말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3.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우리의 신학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보다 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부귀 강녕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신학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말하거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행동할 때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우리의 신학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삶, 교회의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반영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 본회퍼는 교회를 “현존하는 그리스도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¹⁸⁾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계17:1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빌2:5-8),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폭력적 힘으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지도자이며 섬기는 왕이셨다.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인가?(눅9:23) 우리가 대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제군주적으로 군림하는 신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셔서 섬기는 바로 그분인가? 우리가 대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폭군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사랑과 의를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겸손한 하나님인가? 오늘날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대형교회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18) Dietrich Bonhoeffer, *Act and Being: Transcendental Philosophy and Ontology in Systematic Theology*, tr. by H. Martin Rumscheid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11. 바르트는 교회를 가리켜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지상적이고 역사적인 존재 형태이다”라고 말했다.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1, 661.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마10:37)”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가?¹⁹⁾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섬기며,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지상적이고 역사적인 실존 형태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나라의 잠정적인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이다. 담임목사직의 세습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²¹⁾

이렇게 본다면 교회 세습의 문제는 단지 윤리 도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가 된다. 물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교회는 없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에 누구나 다 약점과 잘못이 있다. 문제는 그 약점과 잘못에 해당하는 담임목사직 세습을 억지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4. 교직자 소명론, 청빙론의 관점에서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론이 맹렬하게 일어나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목회자 청빙(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세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세습이라는 용어와 관점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며,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합한 사람을 다음 목회자로 청빙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직 담임목사의 자식도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칼뱅은 교역자(주로 목사)가 정식으로 세움을 받는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 즉, 각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서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소명, 즉 내적 소명(inner calling)과 신자들(교회)이 어떤 신자의 자질과 자격을 보아서 선택하는 외적 소명(outer calling)이 그것이다.²²⁾ 그러나 칼뱅은 전자에 대하여 “우리가 직책을 받은 것은 야망이나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교회를 세우려는 욕망에서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증거가 있어야

19)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족까지도 증오해야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인간적인 사랑, 혹은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는 데 방해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칼뱅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인간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마땅한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한, 남편은 아내를, 아버지는 자녀를,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 누가복음의 표현은 더 심각하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한다. 즉 “만일 우리 친족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용감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Calvin, *Commentaries on Matthew, Mark and Luke*, vol. 1, 312 (on Matt. 10:37).

20) 바르트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모든 인류 세계의 잠정적인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1, 643.

21) 김명용도 교회 세습이 하나님 나라의 거울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치명적으로 파괴한다고 비판한다. 김명용, “목회자의 세습에 대한 7가지 신학적 비판,” 57이하.

22) Calvin, *Institutes*, IV.3.2.

한다”라고 말할 뿐, 주로 후자에 대하여 취급한다.²³⁾ 그런데 악한 자도 그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당하게 부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건과 학문, 그리고 선한 목자의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²⁴⁾ 그 은사들은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가르쳐야 하며,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로 보면서 가장 적격인 사람을 교역자로 선출하는데, 칼뱅은 그 과정을 투표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 투표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 14장 23절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인데, 이 때 ‘택한다’는 말, *χειροτονεω*의 뜻 중에는 “손을 들어 선출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²⁶⁾

먼저 내적 소명에 대하여 살펴보자. 목사의 자녀가 다시 목사로 부름 받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일은 세습하는 교회들의 담임목사의 자녀들이 과연 모두 그 아버지가 일하던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관한 진정한 내적 소명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내적 소명은 내적인 문제인 만큼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오늘날 한국의 여러 대형교회 세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내적 소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어야 할까?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나 감독들이나 교역자들 중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들이 유독 현대 한국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칼뱅은 내적 소명에 관하여 “우리가 직책을 받은 것은 야망이나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교회를 세우려는 욕망에서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세습을 감행한 목사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에 이러한 내적 증거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알 듯이, 그리고 본인들이 시인하듯이,²⁷⁾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낫다는 극히 사적인 동기가 지배적임을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외적인 소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들은 그 결정 과정이 절차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외적 소명의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후임 목사 자신의 능력과 인격과 자질이 교인들로부터 정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절차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 절차가 동일하게 혹은 보다 탁월하게 유능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다른 목사들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 받고 청빙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런 절차를 정당한 청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KBS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97년, 총현교회의 부자 세습에는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한 김성관 목사가 목회경력 5년이라는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하자 그 조건을 회칙에서 삭제

23) 같은 책.

24) 같은 책.

25) Calvin, *Institutes*, IV.3.12.

26) Calvin, *Institutes*, IV.3.15.

27) 김홍도 목사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조선일보』 신문광고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를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들 아니면 사위라도 후임자가 되면 아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고, 아버지가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아들도 싫지 않습니다. 뒷받침해주니까 힘이 되고 안전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지는 해이요, 아들은 뜨는 해니까 아들이 존경받아야지’ 또는 ‘저는 흥 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 하는 심정으로 시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적인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관계없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면 서로 시기한다고 하여, 자신들의 마음에 이미 시기심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김홍도,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 22면.

했고, 미국시민권이 문제가 되자, 시민권을 나중에 포기하기로 하고 청빙안을 올렸으며, 비밀투표가 아닌 찬반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했다고 한다.²⁸⁾ 또한 2012년 10월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세습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는 회의 순서도 배포되지 않았고, 아들 목사로의 승계의 건은 그 자리에서 처음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약 30분 가량 아들 목사에 대한 찬양과 승계를 정당화하는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반대 토론과 이의 제기는 모두 거부되었으며, 비밀투표를 위한 기표소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투표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 측은 어디서 반대 물표가 나왔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사전에 찬성표를 유도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담임목사가 장로들에게 전화해서 협조를 구하고, 부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전화해서 협조를 구하는가 하면, 공동의회가 있기 전날 청년들을 따로 모아서 찬성표를 찍도록 교육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²⁹⁾ 이런 형편을 과연 정당한 청빙 절차요, 정당한 외적 소명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설사 형식적으로 어떤 복수 후보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들 목사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 부친의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가? 또한 세습이 예상되는 자녀가 이미 그 교회 안에서 교역자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외부인 후보자가 있더라도 과연 동등한 심사가 가능한가? 이러한 사정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어떤 선수는 50m 쯤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맺는 말

지금까지 대형교회의 세습이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았다. 교회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권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교회의 네 가지 표징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세습은 교회의 일치성을 훼손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며,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며, 교회의 사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세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교회가 말과 행위로 전파하는 하나님 상, 그리스도 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된다. 또한 소명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교회 세습이 정당한 소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교회 세습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신학적으로 고찰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인들은 그것이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습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을 더욱 실추시키는 일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파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사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변혁적 능력을 상실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필자는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만이 의인이고, 우리만이 참된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형교회들의 잇따른 세습이라는 이 사안을 신학적으로 고찰해

28) KBS, “멈추지 않는 교회 세습,”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55182&retRef=Y&source=http://www.google.co.kr/url?sa=t&rct=j&q=교회세습&source=web&cd=9&ved=0CG0QFjAl&url=http://news.kbs.co.kr/tvnews/4321/2012/10/2555182.html&ei=rmLqUOXIMYzRkQXRm4HYDg&usg=AFQjCNFzw4lyV1paDjSYa5SwULJQRoC-kg&bvm=by.1355534169,d.dGY&cad=rjt&, 2012년 10월 21일 방송.

29) 같은 자료.

볼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당시 시장에서 팔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하여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10:23)”라고 말했다.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바울로서는 거리낄 것이 없는 문제이지만 다른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세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세습을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제 또 세습을 하려는 이들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설령 정말로 그 아들 목사의 능력이나 자질이 정말로 탁월해서, 그 교회 교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한국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흔연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전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갈지라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를 청빙하기 원할 것이고,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낼 것이다. 혹은 스스로 나아가 개척을 할지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부친이 사역하던 교회를 세습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가?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독자적으로 나아가 또 다른 아름다운 사역들을 일구어 낸다면 한국 교회는 더 생기가 돌고, 더 희망차지 않을까?

교회 세습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 성직 세습, 그 마지막 유혹 -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 들어가는 말: 양날의 검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공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순교해야 하는가?”라는 신앙적 질문이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최종적인 질문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세속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임박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불가피하게 교회 공동체의 제도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세속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심판은 ‘이미(already)’와 ‘아직(yet)’ 사이에서 ‘어정쩡한 윤리(quandary ethics)’가 되었으며,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지혜를 짜내어 최소한의 악으로 최선을 기대하는 ‘근사치 정의’의 현실주의나 공리주의 윤리를 제시하는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윤리적 주소이다.

물론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에른스트 트뢰치(Ernst Peter Wilhelm Troeltsch)가 섹트나 신비주의 유형을 통하여 교회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역사 속에서 어떤 차선의 대안이 있었는지 제시하였으며,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도 문화변혁적인 그리스도론을 통한 교회 갱신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루터의 직업소명설이나 칼빈의 예정론을 통한 청교도적 금욕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발흥을 발견한 막스 베버(Max Weber)의 경제이론에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한계로 지적한 바, 노동을 통한 자기 성취의 확산 대신 내면적 체험이라는 감정으로 귀결된 루터주의에 대한 비판을 곱씹어 볼 때이다. 금욕주의를 통한 세속의 단념은 삶의 시장에 나와서 경제적 합리성을 통한 부의 증대로 이어지지만, 그만 이게 ‘양날의 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부가 증대되면 오히려 종교의 내용이 감소하고 세속적 애착이 커지기 때문이다.³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회의 악을 고발하기 보다는 내면적 죄의 문제에 그 영향력

30) 베버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한계를 “별 수 있는 모든 것을 벌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한 자는, 은총에서 성장하고 하늘에 재산을 쌓기 위해 그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도 베풀라”는 웨슬리의 권고를 상기시킨다.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문예출판사, 1999), 140.

이 제한되며 교회는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어간다.

부와 연관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많은 징후들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 다루려는 ‘성직 세습’(이하 세습)은 현대 자본주의의 ‘소유’와 연관된 전형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쟁점화 되었던 세습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도덕적, 신학적, 그리고 공적 영역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본다. 세습에 관한 지금까지의 글들은 대부분의 도덕적 관점에서의 비판으로서 주로 교회의 경제적 요소(규모와 재정)에 대한 목회자의 교회 사유화를 비판하는 입장이며, 소수의 신학적 관점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성직매매(simony)를 유형별로 비판하고, 세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의 관점은 교회의 세습화 과정에 나타나는 나름의 합리성에 의문을 가지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교회의 책임을 묻는 입장이다.³¹⁾

필자는 세습에 관한 이와 같은 논의들이 한국 개신교 내에서 공론화의 과정에 있다고 보며,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규범을 초월하는 개신교의 가치가 한국 사회를 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차제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습방지법’과 같은 교단의 정화노력이 개신교 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이 글에서 세습의 문제를 권위와 정당성, 그리고 소명의 관점에서 전개하고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권력인가? 권위인가?

세습의 문제에서 부각되는 주요 비판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어진다. 최근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와 함께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³²⁾

목회자가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후임자 문제를 교단의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가 이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첫째, 목회에 근본적으로 혈연적 관계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둘째, 담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권력)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

31)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도덕적 관점에 관한 자료들은 주로 『기독교세계』와 『교회와 이단』, 그리고 『담임 목사직 세습반대운동 자료집』(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1)을 통하여 세습의 실태와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간략하면 『기독교세계』에서는 김경태(제836호), 이진천(제874호), 나이영(제980호) 등이 교회 세습의 풍토와 세습의 유형, 그리고 세상이 보는 관점 등에 대하여 글을 정리하였다. 『교회와 이단』에서는 편집부를 중심으로 주로 종교 병리적인 측면에서 세습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각각 73호, 74호, 108호, 112호, 145호, 155호, 179호에서 글을 실었다. 그리고 기윤실에서는 세습의 유형에 대한 자료집을 통하여 교회의 도덕적 갱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사상』과 몇 개의 신학 저널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선한용, 지인식, 유승원, 이호형, 김명용, 권호훈, 이성구 등이 글을 기고하였다. 내용은 『기독교사상』의 경우, 통권 454호, 514호, 533호, 552호, 544호에 실려 있다. 그 외 소수의 신학적 단상들이 『교회와 신학』, 『한국기독교논총』, 『목회와 신학』, 그리고 『개혁신학과 교회』에 실려있다. 주 내용은 기독교역사와 신약, 그리고 구약 성경 해석을 통하여 세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적 영역과 인권의 차원에서는 『한국여성신학』(2000년 가을 호)이 우은진, 임희숙을 통한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세습을 비판하였고, 강영안의 『철학과 현실』(2000, 겨울)을 통한 인문학적 비판의 글도 있다.

32) 참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137항 제36조 (담임자의 파송)

고 셋째, 세습 문제로 야기된 대 사회적 신뢰성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교회행정을 파행으로 처리하는 권력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감리교회의 노력은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이며 개신교 전체에 좋은 전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행정은 목회자의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수행되는 것이다. 권위는 상향적이지만, 권력은 하향적이다. 권위는 공동체의 자발적인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권력은 명령과 절대 복종을 필요로 한다. 세습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세습의 근거로 성서(신적 권위)와 목사직(소명), 그리고 성도의 순종(종교적 합리성)에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본래적인 이와 같은 가치들은 곧 퇴색하고 만다.

교회의 권위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을 내놓은바 있다. 성서의 권위는 공동체의 사건을 통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서의 권위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후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권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권위는 성서를 통한 해석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한 생생한 삶의 사건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우어워즈는 기독교윤리는 계시된 도덕(revealed morality)이 아니라, 계시된 실재(revealed reality)로 보았다. 인간의 정황을 고려하여 추상적으로 접근하여 이상적인 도덕을 그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도덕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을 돌파하는 제자도를 통하여 성경의 진정한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세습이 전적으로 권력적 모습으로 비치는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한 공동체적 사건과 제자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습을 원하는 공동체와 목회자, 그리고 자녀도 교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나름 합리성을 가진다. 세습의 절차에 필요한 회의를 거치며, 위임의 형식을 통하여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는 과정에서 세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공동체의 거룩한 권위가 아니라, 교회를 좌우하는 목회자의 권력으로 비쳐지는 데에 있다.

기독교의 진정한 권위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의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목회를 통한 목회자의 헌신과 교회를 염려하여 자녀에게 세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권위가 아니다. 세습을 주장하는 독선이 앞서기에 권력의 충돌과 알력,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파행이 거듭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세습이 권력으로 비쳐지는 이유에는 중상주의의 논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자립하기도 힘든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평생을 바쳐 헌신한 아버지 목사님의 대를 이어 몇 명 안 되는 영혼들을 위하여 좋은 취직자리를 마다하고 목회에 뛰어드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대물림’이나 세습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고생을 사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습의 경우, 안팎의 비난은 ‘대물림’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된다. 비록 아버지 목회자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였어도 아들에게 이어질 경우, 무임승차로 보며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목회의 장애가 제거되고, 그리

33) Stanley Hauerwas, *Excerpts from From Christ To The World* (ed by Wayne B. Boulton et al.,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34-39.

고 아버지 목회자는 아들을 통하여 목회의 대리만족을 지속하게 된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목회는 육체적 DNA로 형성되지 않는다. 목회의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모든 목회자는 거룩하게 부름 받은 종일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에 의하지 않고, 소명에 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父子)의 관계를 통하여 계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통하여 완성된다. 부르심과 순종 외에는 목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정통성인가? 정당성인가?

개신교의 세습에 나타나는 규범적 논의는 윤리적인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습은 형식적으로는 교회의 자유에 속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냉소적인 이유는 바로 종교의 규범이 사회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금의 논쟁에서도 비쳐지는 기독교의 모습처럼 세습도 교회의 사회적 정당성과 정통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동의’를 통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대를 걸었다. ‘정당성 (legitimacy)’이란 도덕적으로 확정된 사회적인 자기 정체성의 사회 통합적인 보존이며, ‘정통성 (legitimation)’이란 구성된 가치들을 실현시키는데 적합한 절차와 연관이 되어있다.³⁴⁾

세습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을 때 세습이 이루어진 교회는 절차상의 합법성을 강조하게 된다. 세습을 이루기 위하여 일련의 교회 내 절차를 거쳤기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합리적 정통성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가 속한 교단의 법을 통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기에 적법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와 사회의 질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보존하여야 할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나 교회의 종교적 가치 보존에서 그 절차적 정통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 동의를 늘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그 내면에는 교회란 적어도 사회가 이룩할 수 없는 초월적 정신세계의 실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 사회 내 걸핏하면 일어나는 기업의 부패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은 매우 냉정하다. 기업의 투명성이란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나 주주, 사원, 채권자, 그리고 시장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에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와 투자자들에 의하여서도 수행된다. 따라서 기업부패방지법을 통한 기업의 윤리적 거버넌스에 대한 요청이 점점 거세게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적 통합의 가장 높은 단계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규범적 조화를 전제로 한다.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의 3권 분립을 통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권력의 분산을 통하여 모든 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비록 세상이 성도들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 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 인정받고 저 높은 뜻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경제 조직체에 대한 윤리적 요구가 이렇게 높을진대, 영적 영역의 교회에 요구되

34)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교보문고, 1990), 127-128.

는 도덕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세습을 이룬 교회의 절차적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는 여전히 교회의 의사기구가 담임자의 정치적 역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다. 교회도 제도인 이상 일종의 정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적 영역은 엄연히 구별된다. 종교란 인간의 절망에 희망을 주는 거룩한 상상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그 가치가 보존된다. 정치란 제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발현된 행위이지만, 자유와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회적 통합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세습의 경우 사회적 지탄이 되는 이유는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통합과 보전이라는 ‘규범적 요청’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즉 세습의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사건은 목회자의 정치 정략적인 권력화로 축소된다는 인상을 주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과 보편적 사랑은 세습을 이루려는 목회자의 개인적 판단과 가족의 영역에 제한되고 만다.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희생은 세습에 따른 교회 내 또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감수로 대체되고, 부활의 영광은 자녀를 통한 교회의 성장논리로 바뀌게 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한 목회자의 가족사로 변질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추종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갈등으로 바뀌고, 교회 건물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유지로 바뀌는 이미지변질을 가져온다.

또한 세습은 아버지 목회자의 정신적 영역이 아니라 교회의 건물을 통하여 소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더 정당성이 없다. 목회가 경제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현재 개신교 약 80퍼센트의 교회와 목회자가 면세점이하의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세습이 주로 교단의 지도자들이 담임하는 대형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순수한 목회의 계승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세습함으로써 목회자간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며, 목회자간 경제적 차별이 지속되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4. 소명인가 직업인가?

위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세습의 문제는 자칫 목회자의 권위와 정당성이 아닌, 권력과 자기중심의 비합리적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의 소명은 전적으로 개인의 명예와 생존을 위한 경제적 행위로 비쳐지게 된다. 개신교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영혼 구원을 위한 성직자의 모습은 세습을 통하여 경제적 행위와 보상을 전제로 한,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직업인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물론 목회자도 삶에 필요한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명은 그 의식주의 영역을 뛰어넘어 희생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세습에 있어서 종종 신약의 직임자들이나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급이 된다. 신약성경에서 세습의 유형을 발견할 수 없다. 교회의 거룩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 감독이나 집사(행 1:12-26, 딤후 3:1-13)의 조건에 혈연의 내용은 없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몫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로써 권력과 소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으며, 대신 백성들의 십일조를 통하여 생활하였다(민 18:20, 24).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예배를 담당하고 혈연적인 세습의 형태를 띠지만, 세속권력이나 부의 축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³⁵⁾

35) 이성구, “지역교회에서의 소위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구약신학적 고찰,” 『개혁신학과 교회』(제11권제2호, 통권 제12호), 8~34.

목회자에게 무소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자유에서 발현되는 부르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루터(Martin Luther)는 만인사제설을 통하여 모든 크리스천은 사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강조한 것은 자기 스스로 사제가 되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탁하신 것들을 서로 가르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³⁶⁾ 즉, 만인 사제설의 본래 뜻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루터는 사제가 결혼을 하면 가난한 목회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고 양심에 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결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이해하였기에 독신을 반대하였다. 당시 로마교황이 결혼을 금하였지만, 결국 이는 사제들을 죄와 스캔들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결혼의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신앙의 자유이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루터는 강조하였다. 루터가 결혼과 관련하여 직접 세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제들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이 사제의 목적이 되면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되려고 할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도 사제가 되도록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되면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나 고생 없이 사제직이 세속적 부양을 얻게 되는 직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였다.

칼빈(John Calvin)도 사제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린바 있다. 사제직이란 누구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교황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정한 대제사장의 직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리인이나 후계자 없이 성직을 감당하셨다. 따라서 사제직이란 교리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과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⁷⁾ 칼빈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 어떤 종교적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상기시킨다. 마치 모세가 그의 사명을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마감한 것처럼, 사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헌신과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소명인 것이다.

진정한 사제가 되는 것은 아론(Aron)의 인간적인 제사장의 외양적인 옷이나 제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루터의 지적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그는 목회란 바울의 경우처럼 오로지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신 멜기세덱의 반차(히 7:17)를 따라가는 영적인 직무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칼빈이 지적한 목회자의 순전한 사명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한다. 목회는 죽음으로 마감하여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신앙의 정수가 아닌가?

세습이 이루어지는 곳에 죽음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개혁의 이상은 찾기 힘들 것이다. 혈연으로 이어지는 목회는 광야가 아니라 궁전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회자 스스로가 이웃이 아닌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세습의 통로에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잃게 된다. 성직은 믿음과 헌신, 그리고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성직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36) Martin Luther, "CONCERNING CHRISTIAN LIBERTY,"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London: John Murray, 1883), http://www.ccel.org/ccel/luther/first_prin

37) John Calvin, "CHAPTER 6. OF THE PRIMACY OF THE ROMISH SEE,"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ttp://www.ccel.org/ccel/calvin/institutes>

않고 주를 위하여 살며, 가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가족보다도 더 크다. 목회자에게도 가족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공동체의 평등한 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혈연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따라서 진정한 목회자는 자기와 가족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먼저 염려하는 성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세습 그 마지막 유혹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타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위선’이라고 보았다.³⁸⁾ 역사 속에서 교회의 ‘위선’은 ‘교파나 교리분열’이라는 모습으로 위장하여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물론 진리에 대한 교리의 차이나 교파주의에 ‘개혁’의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교회 분열을 가장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자성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세습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노력은 최소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 현대 신학에서 중요시하는 서사적 관점은 성경의 구원 사건이 시공을 넘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성경 어디에도 ‘세습의 이야기’는 없다. 교회의 위기는 세습을 둘러싼 현대 교회의 이야기가 구원사건과 연관이 되지 못하는 점에 있다. 성경속의 진리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를 둘러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현 시대 교회에서 회자되는 모든 이야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전적으로 삼위일체를 통한 성령의 선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인 ‘사회화’의 모델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는 자신이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타자를 위해, 타자의 현존 안에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³⁹⁾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도 하나님과 연관된 개념들 가운데 ‘절대주의(Absolutism)’,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그리고 ‘부계중심주의(Patriarchalism)’와 같은 것은 모두 다 전근대적인 군주적 개념들이라고 보았다.⁴⁰⁾ 보프는 삼위일체론은 영원히 홀로 있는 일자의 고독이 아니라 일치와 다양성, 곧 일치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¹⁾ 그는 삼위일체론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체를 ‘사회적 유비’로 발

38) Richard Niebuhr,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Harper, 1959), 88.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한 청교도와 웨이커교도의 ‘하나님 나라’ 이념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소는 신적주권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었으며, 두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는 특별하고 새로운 은혜의 경험으로 공동체를 인도하였다는 것과 세 번째 요소는 권능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주권, 은혜 소망’으로 구성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미국의 개신교를 인도한 중요한 신앙적 유산으로 이해하였다.

39) Jü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 삼위일체 신학을 위한 기여』(이신건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8), 189.

40) Leonardo Boff, 『삼위일체와 사회』(이세형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1), 147.

전시켜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꿈꿔온, 인간 공동체에 대하여 주목하라고 주장한다.⁴²⁾

교회는 권력이 아닌 은사의 다양성에 의하여 유지된다. 성령의 약속에 의하여 주어지는 이 복음의 전적인 목적은 세상 각 영역 속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화는 정치를 통하셔서가 아니라, 순전히 다양성과 연합 정신을 통한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교회는 성직의 갈등과 분열로 비쳐지는 전근대적인 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칭찬받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제도를 통하여 구현되는 정의로운 법은 사회의 법이나 제도보다 앞서야 한다. 사회의 법은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구성하기 위하여 나뉘어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속적 정치도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법과 규범은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야 한다. 사회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종교법은 개 교단이나 교회의 아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질서와 소통의 절차를 보여주어야 한다. 거기에는 편견이나 배타성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자유로운 존재로 부름 받은 소명만이 있을 뿐이다.

교회의 규범을 통하여 교회와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전념하며 권력이 아니라 권위에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재화의 크기와 교회의 크기, 또는 목회자의 전권에 의한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은 각 개인의 다양성과 연합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왜곡된 의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마음의 원하는 바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병에 시달린다. 세습하는 것도 자유이고 세습하지 않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Augustine)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선(good)이 된다는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⁴³⁾ 이생의 자랑인 자기만족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본회퍼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정의하였다.⁴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버림받을 절규하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그전에 이미 제자들도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였는가? 이때 유혹하는 마귀도 떠나는 것이다(참고, 마4:11). 세상에 버림받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만이 천사를 통하여 도우시는 것이다(눅22:42-44).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 때 마귀도 유혹을 멈추었다! 홀로남아 버림받은 존재와 같이 되었을 때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옥중에서 본회퍼는 자신에게 나치에 협력하면 풀어주겠다는 꼬드김을 ‘최후의 유혹(Last Temptation)’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나아갔다. 세습은 어쩌면 목회자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마지막 걸림돌일 수 있다. 평생 목회를 통한 헌신과 희생은

41) 위의 책, 20.

42) 위의 책, 146.

43) Augustine, 『고백록』(선한용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3), 229.

44) Dietrich Bonhoeffer, *Creation and Fall, Temptation* (Collier Book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59), 106. 이하 본회퍼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이 땅의 대가로 보상받으려는 인간적인 생각, 교회의 장래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을 이어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세습,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 같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신앙의 자유에 있지 않았던가? 이 자유는 모든 불의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정 의가 살아 숨 쉬는 영적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If you die before you die, you will not die when you die!)” 기독교의 영성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마음의 밀실로부터 엄습하는 이 세상의 세습 과 같은 안주로부터 해방하는 길은 죽음을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부활신앙만 의지함이 우리의 살길이다.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교회 세습'(초안) -

박영신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 사회학의 눈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지고 살아가는 학도라면 모름지기 두 가지 문제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이 학문 세계에 들어서 있는 한 누구든 '서구'의 사회학자들이 일궈놓은 이론과 연구 결과에 익숙해 있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학문 성과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사회의 됴됨이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밑바닥 문제로 다가서려는 분석 관심을 지켜가는 일이다. 사회학이 서양의 역사 문화에서 문제로 떠올라 그것과 씨름한 데서 펼쳐 나왔기 때문에 이 학문의 틀에 우리의 문제를 단순 대입하여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서투른 것이다. 서양의 학문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의 일차 관심은 서양 사회의 문제에 있었다. 그들은 남의 나라가 겪는 문제를 두고 애정과 관심이 담긴 날카로운 비판의 눈으로 따져 들고자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두고 집요하게 파고들어가 그 문제와 맞붙어 싸움해야 할 사람은 '우리'이고 '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무리 변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짜이게 되었고 그것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를 헤아려보고 그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회학을 하는 학도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 관심에서 우리 특유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교회의 세습 문제를 나의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른 말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눈길을 두고 나름 그것과 씨름해온 한 사회학도로서 이 문제의 실체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의 세습 문제는 간단히 교회 세습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잉태된 것이다. 교회 세습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교회 문제이고 우리 사회에 번식하게 된 '우리식 기독교'의 문제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와 떨어져서는 온전히 풀이될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아래에서 먼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살펴본 다음, 거기에서 교회가 걸어온 길을 새겨보고 교회의 세습 문제를 뜯어보고자 한다.

교회 세습의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는 물론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앞서 여러 수준과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바 있다(이 원규, 2009: 45-58). 교회 세습의 문제가 널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앞서 교회 세습이 일어난 그 교단에 속한 신문에서도 이 일을 다뤄졌을 정도

이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벌써부터 논의해온 여러 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도 되었다. 그러나 논의란 갈을 수 없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은 구석이 있는 법이다. 오늘 이 모임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과 배움을 보태고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의 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는 교회 세습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짜임새와 역사 경험에 비추어 풀이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논지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게는 그러하다. 이 논의의 전제와 바탕이 되는 우리 사회의 짜임새를 두고 앞서 내가 여러 가지 보기를 들어 살펴본 여러 글의 논지뿐 아니라, 더욱 구체스럽게는 교회 세습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발표한 글의 논지에 아래의 논의가 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회 세습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나머지 스탠포드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해 봄에 내가 발표한 바 있다(Y. Park, 2012). 아래의 논의는 이와 같이 앞서 내가 발표한 글의 논지 안에 들어서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케 된 교회 세습의 현황을 새삼 길게 적을 필요가 없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짜임새와 교회 세습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하여 논하고자 할 따름이다. 어떤 뜻에서는 이러한 사회(과)학 쪽의 시도가 교회 세습의 문제를 두고 벌이는 토론에 설명의 근거와 또 다른 생각거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회의 짜임새

오늘의 우리 사회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체의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의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거기에서 전개되어 나온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조선 사회의 구조와 과정을 역사 사회학의 눈으로 뜯어 보고자 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박 영신, 1977/1978; 1978/1978; 1987: 3부; 1996: 3부). 내가 밝히고자 한 내용을 여기에 다시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 알맹이를 말한다면 그것은 효 중심의 유교 가치가 조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삶 그 자체를 다스려 왔다는 점이다. 유교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자의 인륜 관계를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 효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여겼다(벨라, 1981). 하지만 유교 문화권에 들어선 동북아시아 세 나라 가운데서 그 가치가 일차의 우위성을 유지하면서 그 힘을 떨치게 된 것은 조선이었다.¹⁾ 조선 사회에서는 국가/왕에 대한 충이라는 헌신과 복종보다는 가족/부(모)에 대한 효라는 헌신과 순종이 더욱 강조되었다. 효의 가치는 절대의 자리로 올라서 그 원리는 모든 행위에 우선하였다. 조선 사회의 윤리와 교육은 물론 모든 제도 또한 이의 일차성을 지켜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효 중심의 유교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상 숭배라는 의례도 제도화되었다. 조상에 대한 숭배의 신앙과 이에서 비롯된 의례는 조선의 유교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계 사회의 남성 우선 원칙에 따라 제사가 조직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의 원리도 강조되어 왔다. 조상 숭배의 의례와 효는 겉과 속일 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뭉치였다(崔 吉城, 1986: 3장). 비록 유교식의 제사 제도가 고려 말이 되어서야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것이 조선 사회에 제도로서 일반화된 것이 17세기 이후라고 하더라도(윗글: 91) 조상

1) 꼭 같이 유교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믿음의 지향성이 조선과 중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최 부(崔溥)(1454-1504)의 「漂海錄」을 자료로 삼아 분석하고 있는 박 영신의 글(1995/2006: 129-153) 볼 것.

을 우러러 받드는 종교의 심성과 의식은 이처럼 아득한 지난날의 부계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교에 앞서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불교조차도 혈연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조상 숭배와 효의 의식 세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박 영신, 윗글).

조선 사회는 효의 가치와 그것이 제도화되어 나온 조상 숭배의 의식 세계로 표상된 유교에 의해 빈틈없이 짜여졌다. 삶의 영역 모두가 이 종교 신념에 이어져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영역도 자체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보기를 들어, 교육 제도와 유교라는 종교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교육 제도 속에 유교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제도를 바꾸고자 해도 그것은 다만 교육 제도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교라는 종교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했다. 그만큼 사회 영역과 종교 영역이 분화되지 않고 함께 녹아있었던 것이다. 종교를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기에, 조선 사회에서는 어느 영역을 혁파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사회의 어느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교의 틀과는 다른, 유교의 권위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대안의 상징 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능력을 제공해 준 것이 개신교 기독교였다.²⁾ 개신교라는 외래 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의 역사 상황은 지난 날 천주교의 경우와는 달랐다. 개신교라는 서양 종교에 대해서는 훨씬 부드러운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개혁 지향의 세력이 개신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고, 선교사들도 조심성 있게 선교 운동을 펴 개신교는 조선 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학교를 세워 겨레를 위해 일할 ‘새로운 인물’을 기르고(박 영신, 2012) 병원을 열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 이와 함께 개신교에 들어서는 교인도 늘어나고 교회도 많아졌다. 개신교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³⁾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전래의 문화와 만나 소통해야 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종교혼합 현상” 속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기독교는 한국인의 말글뿐만 아니라 민속 신앙에 담긴 관념을 받아쓰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해야 했다. 이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지게 된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도 할 수 있다(정 대위, 1986: 142-171; 유 동식, 1996; 김 은기, 1996). 그럼에도 기독교는 기독교여야 했다. 기독교는 더욱 깊은 수준에서 전래하는 의식 세계를 질문하고 새로운 삶의 의식 세계를 열어보였다. 기독교인은 그러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이들 초대 기독교인은 더 이상 유교를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은 기독교가 내세우는 초월의 존재를 절대적 권위로 믿어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절대적 권위를 주지도 않았고 또 줄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들 기독교인이 유교 지향성에 맞서 사회를 바꾸고자 한 변혁 세력이 되었다.

이제 이들은 조상 숭배의 제사 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개신교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한 세기나 앞서 우리나라

2) 이 글의 테두리를 벗어나기에 여기서 논의하지 않으나 한말의 동학 운동도 개신교와 등가를 이루는 사회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박 영신, 1978/1978: 161-174; 1996: 10장).

3)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사 쪽에서만 관심을 두어온 것이 아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종교학과 인류학 그리고 사회학 쪽에서도 이 문제를 논한 글이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관심 영역의 글을 함께 검토하면서 가장 체계 있게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박 정신의 우리말 논문(1989/1997; 2004)과 영어 논문(C. Park, 1992)과 책(C. Park, 2003, 1장) 볼 것.

라에 들어온 천주교가 제사 제도와 대립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수난을 당한 바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천주교의 선교 전략을 예의 검토한 다음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자 하였지만(박 영신, 1985/1996) 조상 숭배의 신앙 문제에서만은 피해갈 수 없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밑뿌리가 되는 믿음이기에 그러하였다.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믿음의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독교에 들어와 세례를 받게 될 때는 모두가 “[...] 조상의 영들을 존경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복종한다”고 고백하고 선언하도록 했다.⁴⁾ 이렇듯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효에 터한 가족 중심의 의식 세계를 강화해온 조상에 대한 숭배의 의례에 맞설 수 있는 변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다(박 영신, 2008/2011: 112-113).

그러나 조선의 유교 전통에 대한 비판은 줄기차게 펼쳐지지 못하였다. 일제 강탈의 지배 밑에 들게 되면서 전래하는 조선의 의식 세계에 대한 비판의 에너지는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반일 자주 독립의 영역으로 옮겨가 거기에 투입되어야 했다(박 영신, 1983/1987: 254-256; Y. Park, 2000: 515-518). 조상 숭배에 대한 거부는 그 수준에서의 거부 행위였을 뿐 그것이 삶의 모든 수준으로 침투해 들어가 의식의 밑뿌리를 바꿔놓을 만큼 끈질기게 변혁의 에너지를 자아내지 못하였다.⁵⁾ 그러한 까닭에 개신교마저도 혈연에 터한 가족의 가치를 일차의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이해하는 좁다란 의식 세계를 깨뜨릴 수 없었고,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두를 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더욱 넓은 공공의 의식 세계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가족 중심의 의식 세계는 없어지기엔커녕 근본의 수준에서는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오늘의 삶 속에 굳건하게 남아 있게 되었다.

3. 교회의 발자취

우리가 바랐던 그대로 일제 강탈의 계곡을 지나 광복을 맞았다. 비록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지만 그것은 우리가 되찾고자 한 바로 그 나라였다.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기보다는 긍정하고 후원해야 할 나라였다. 강탈기의 자주 세력이 바랐던 광복을 이룬 마당에 우리 사회의 깊은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사사로운 자기 집안 중심의 좁은 의식 세계를 일관되고 집요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을 우리 사회는 갖지 못하였다. 우리가 좁다란 가족 중심의 의식 세계에 갇혀 더욱 넓은 공공의 의식 세계를 저버리고 있다는 소리는 허공에 떠돌고만 있었다.⁶⁾ ‘못 살겠다며 정권을 바꾸자 하고 마침내 독재라고 해서 타도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밑뿌리 문제가 되는 좁다란 가족 중심의 사사로운 의식 세계에 대해서는 어느 세력도 정면으로 맞서 공공의 수준에서 담론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발언의 터전도 가꾸지 않았다. 모두가 이 깊은 문제를 깊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나쳤던 것이다.

모든 것은 바로 이 가족 중심의 의식 세계 곧 ‘가족주의’의 바탕⁷⁾ 위에서 진행되었다. 군사 쿠

4) 이것은 1897년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세례 교인에게 철저한 삶의 기강을 세우고자 하여 만든 규율의 내용이다(헨트리, 1995: 276-278). 그리고 박 경신(2008: 53-54)도 볼 것.

5) 기독교의 신앙 운동이자 민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풀이되어야 한다(박 경신, 2008: 111-122).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나온 숭실학교의 경우(박 경신, 2011: 147-169) 그 뜻이 초월 신앙에 터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효 중심의 가족주의와 또 어떻게 이어 이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기회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6) 예외가 있기는 하다. 보기로, 광복을 맞아 돌아온 서 재필의 강연을 귀히 여겨 자신의 책에 옮겨 놓은 최 현배(1958: 519-520), 그리고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박 영신(2002: 91-103, 2012 ㄱ: 33-35) 볼 것.

7) 이러한 뜻으로 가족 중심의 의식 세계를 중시하게 된 것은 조선 사회를 효 중심으로 짜였다고 한 나의

데타 이후 우리가 경험한 경제 성장도 이러한 의식 세계를 효과 있게 동원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국의 근대화라는 경제 성장의 열매는 가족 중심의 의식에 경제 가치의 중요성을 접붙여 놓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박 영신, 1983/1987: 256; 1986/1987: 8장; 1987/1995: 1장). 우리 집안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집안 식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어야 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도 오로지 잘 살아보자는 그 한 가지 열망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일터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였다. 가족주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의 원천이고 윤리의 지침이기도 하였다.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길이라면 정부가 주도한 산아제한의 각종 정책도 모두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무분별한 임신 중절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윤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Y. Park, 1994: 117-118). 정부가 나서서 ‘잘 살아 보자’며 경제 욕구를 부채질하고 그것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여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은 날개 돋친 듯 속도를 내어갔다. 경제로 세상을 보는 ‘경제주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 성장은 한 동안 서양의 사회(과)학이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전통의 청산은 고사하고 근본에서는 가족주의라는 전통과 모순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빚지 않고 그 틀 안에서 평탄하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경제 성장의 본보기처럼 되기도 하였다. 우리도 산업화된 다른 사회의 구성원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욕구로 움직이고 시장 지향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경제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단위로 하여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왔다.⁸⁾ 이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의 경제를 자본주의로 규정한다면 정확히 그것은 일반스런 뜻에서가 아니라 가족주의라는 우리의 의식 세계에 터한 ‘친분 자본주의’라고 해야 옳다(박 영신, 1989/1995: 특히, 22-23).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삶의 원리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전래의 가족주의로서 구성원 사이의 친밀한 결속 의식을 강조하는 삶의 모형으로 삼아 행동을 이끌어 가고 조직을 운용하는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과 어울려 경제 논리로 삶을 이해하고 경제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가능코자 하는 경제주의 원리이다. 가족주의와 경제주의라는 이 두 가지 원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과 조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행동 지향성을 마련해 주고, 우리 사회에 동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박 영신, 1998: 184-215).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가?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짜임새 안에서 어떤 꼴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 사회를 휘몰아온 조국 근대화의 동원 체제에서는 어떻게 움직여 왔으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디에 자리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앞에서 짧게 밝혀두었듯이 우리 역사에 들어와 변화의 공급원이 되었던 초대 기독교는 그것이

논의(1977/1978, 1978/1978, 1981)였지만 ‘가족주의’와 이의 확장 형태로 ‘유사 가족주의’라는 낱말을 내세워 위와 같은 논지를 편 것은 그 다음에 발표한 글에서다(박 영신, 1983/1987). 이 문제에 눈길을 돌려 우리 사회를 분석코자 하는 송 재룡(2004)과 송 재룡/경 상근(2011), 이 황직(2004)와 경 재영(2004), 그리고 세분화시키고 있는 경 수복(2007)도 볼 것. 한국인의 심리 구조를 ‘포함’이라는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는 심리학 쪽의 논의(문 은희, 2011)도 가족주의의 개념과 가깝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 문 은희(2011)의 연구를 따르면, 부모와 분리된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동을 분석하는 서양의 심리학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가족’을 단위로 하여 행동하며 개인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 행위도 이 개념에 이어 분석해 볼 수 있다.

터한 초월 신앙에 따라 그 시대의 삶을 지배해온 유교의 절대성조차 비판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 기독교는 한 마디로 대안의 삶을 향한 변화의 신앙 운동이었다. 그러던 기독교가 일제 강탈기를 지나 나라를 되찾아 ‘우리의 정부’를 세우게 되면서 변화의 능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전래하는 의식 세계에 대한 비판이 외/왜인의 지배에 대한 자주의 욕구로 옮겨갔던 바로 그 집합의 바람이 우리 정부의 수립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정부를 두둔하는 친정부 조직 세력이었지 그것과 긴장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지향성을 대변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군사 쿠데타 세력과 그것이 획책한 장기 집권과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잘 살아보자’며 열창한 거대한 국민의 합창 행렬에 모두가 흘러 있는 동안 자유와 인권의 민주주의 가치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갔다.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만 능률이 난다고 믿는 ‘군사’ 정권에 어떤 어깃장이라도 놓게 되면 그것은 정책에 대한 한낱 비판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고 심지어는 ‘좌경’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특정 정부가 국가와 등식화되었던 그 시대에서 교회는 권력의 독선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변화를 요구하고 나오지 않았다.

교회는 조국 근대화라는 깃발 밑에 들어서서 경제 성장을 향한 국민 총동원의 대열을 이끌고 그것을 독려하기만 했다. 교회는 정부의 정책에 장단을 맞추고 정부의 주의주장과 한통속이 되었다. 정부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고 정부 덕분에 몸집이 커갔다. 이에서 재미(?)를 본 교회는 정부가 외친 구호를 고스란히 받아 그대로 외었다. 구호의 복창은 의식의 일치를 말한다. 교회는 정부의 선창으로 온 국민이 합창하게 된 물질의 풍요를 함께 노래하였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생산 증대를 ‘제 1경제’라 하고 이것을 뒷받침해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로서의 ‘제 2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 교회는 모든 것을 경제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주의 문화를 전혀 비판하고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고 강화시켜주는 제 2경제의 역군 역할을 수행하였다(박 영신, 1995: 137-138). 교회 어디에서도 맘몬을 섬긴다거나 섬기자고 내놓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교회는 경제주의를 지지하고 그 속에서 성공과 축복을 풀이해 주고 그것으로 교회의 부흥과 목회의 성공까지도 가능해 왔다(박 형삼, 1997). 다른 어떤 가치보다 경제의 양화 논리를 길잡이로 삼아 교인의 머리수와 거기서 나오는 재정 수입과 재산의 규모로 목회의 능력을 판가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식민화시킨 ‘유물론’이었다. 유물론이란 어느 체제의 불럭에서나 어느 이데올로기의 논리에서만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의 가치를 모든 것 위에 두게 된 우리 사회의 물줄기에 교회도 들어서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추종하고 숭상하였다. 이 물질 지향의 의식 세계를 가리켜 앞서 내가 이름붙인 바 그 ‘유물론’에 교회가 함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박 영신, 1995/2006: 특히 150-151). 이것은 “맑스류의 ‘좌파’ 유물론의 옆자리고 들어선” 한국 교회 안의 “우파’ 유물론”이었다(박 영신, 2006: 344).

경제 성장이 가족 단위로 이뤄졌듯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개체 가족과 유사한 ‘개교회’ 단위로 이뤄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교회주의’라는 것도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한 가족 단위처럼 움직이며 다른 교회들과 경쟁을 벌인다. 기업체가 개체 기업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듯이 교회도 개교회로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도 되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 ‘교파가 너무 많다’, ‘단합이 안 된다’, 또는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이다’하고, 나아가 ‘목회자의 사리사욕/이기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한미준/한국갤럽, 2005: 262-264) 우리 사회의 밑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좁다란 가족주의/유사가족주의가 밖으로 드러난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교회가 그것과 맞붙어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고 수용한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됴됨이와 뒤범벅이 되어 교회가 세속 사회와 근본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렇고 그런 집단으로 굴러간다. 교회에 분주하게 들랑거리는 교인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꼭 같이 좁다란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바꿔 말해,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가 ‘물질의 부’를 갈망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꿈을 꾸며 그것이 보장되는 자리로 올라가고자 발버둥 친다. 그리고 같은 경제의 잣대에 따라 삶의 성패를 잴다. 마침내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더 이상 별난 사람이 아니라 ‘평균치의 인간’ 곧,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다(박 영신, 1984/1987: 367-371).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어떤 근본의 차이점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다(박 정신, 2008: 152-156). 물질 지향의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서만큼은 진보든 보수든 어떤 차이도 보여주지 않는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주류가 치켜세워온 경제주의와 하나가 되어버렸다. 주류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그 주류를 ‘믿음’으로 떠받쳐주는 체제의 하수인 노릇을 교회가 기꺼이 맡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초기에 보여주었던 변혁 지향성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우리 사회가 휘둘러온 휘두름에 일방으로 휘말려든 무기력한 거대 집단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종교가 사회를 바꾼다’는 사회 이론의 보기가 될 수 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회가 종교를 바꾼다’는 사회 이론의 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교회 세습의 모습

교회가 경제 성장의 물줄기에 합류하면서 교회도 급성장했다. 특별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 교회는 눈부신 성장기를 맞았다. 1960년에는 교인의 수가 고작 백만 명 정도였으나 1970년에는 배로 늘어 2백만 명을 넘어섰고, 1985년에는 놀랍게도 인구의 약 20퍼센트가 되는 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때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진입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 90년대 중반을 넘어서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함께 인구 전체의 9할이 도시 거주민이 되었다(Hong, 1997: 9-13). 안정된 농촌을 떠나 낯설고 불안정한 도시의 삶 속으로 던져지게 된 이주자들이 교회로 속속 찾아들었다. 교회는 그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였다. 도시 주민에게 이들 교회는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주일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마치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다음 그리고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고향’을 맛보고 ‘고향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북’ 교회라는 곳에 몰렸듯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도 ‘고향’을 찾고 ‘고향 사람’을 만나고자 교회로 찾아들었다. 이들은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가깝고도 끈끈한 느낌을 교회에서 맛보았던 것이다. 이북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평안도’ 교회가 있었듯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라도’ 교회도 생기게 되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경상도’ 교회도 나타나게 된 것은 그러므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⁹⁾

이 상황에서 교회는 늘어나는 도시 유입 인구를 끌어들이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커져 갔다. 교회는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음박질하였다. 도시 거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편 개발 정책과 그것이 만들어낸 건설 붐은 교회 성장에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었다. 개발 지역은 교회의 개척지가 되었고, 구도심 지역에 있던 교회를 팔고 옮겨와 새

9) 이 논의의 내용은 앞서 발표한 나의 글(Y. Park, 2012)에 기대어 거기에서 자유롭게 따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 밝혀둔다.

로 지을 교회당의 부지를 마련해 주었다. 주택 정책에 따른 '공간 밀집화' 과정에서 대형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徐 佑錫, 1993). 도시의 교인들은 늘어만 갔다. 교회 건물은 더욱 커야 했다. 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시설도 갖추어야 했다. 교회 터에는 교육관 건물이 들어서고, 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내서 그곳에 수양관도 짓고 기도원 건물도 짓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밟아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덩치 큰 대형교회가 나타났다.

대형교회¹⁰⁾가 확장해 가는 품은 기업체와 비슷했다. 구도시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과 달리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놀라운 사업가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민첩한 개발업자나 부동산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디에 새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들 목사는 살벌한 도시의 삶에 분주하게 적응해가야 하는 교중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도 해야 했고, 점차 비대해지는 교회의 행정 사무도 주관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회의 모든 일을 목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교회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고 당회도 있고 교인도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라는 조직의 상좌에 앉아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목사이다. 누구보다 먼저 대형교회를 일구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인을 모아 그것을 따르도록 훈련시키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목사이다. 모든 면에서 그는 기업의 창업주에 버금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다. 보잘 것 없는 작은 교회를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로 부흥-성장시킨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가업을 일으켜 세운 집안의 어른처럼 도도하게 행세하고 교회 조직을 친족 조직처럼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는 교중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를 주어 교중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공경하고 섬긴다. 베버(Weber, 1968: 260-261; 박 영신, 1976/1978: 8-9)가 말하는 뜻에서 그를 '카리스마'의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교중이 높이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는 신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다. 그는 말재주를 가진 웅변술에 능하여 '감점에 호소하는' 인기 있는 대중 설교가이다. 대형교회의 목사라는 그 직위 때문에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저명한 인사가 되어 명성과 명예와 위엄을 얻는다.

그는 교세를 확장하면서 교회의 재산은 증식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처럼 교회도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펼쳐 확장한다. 교회 조직은 점점 커지고 복잡해져 조직, 업무 기획과 경영, 그리고 리더십에서 대기업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목사는 대기업을 일군 창업자나 기업총수처럼 교회의 '창업자'이자 '총수'로 행세하는 '교회 기업가'가 된다. 교회는 십자가를 달고 있다는 것을 빼면 기업체의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고, 목사는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재벌 총수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이 막강한 대형교회 목사도 목사직을 내놓아야 할 때를 맞는다. 그가 누린 권력과 권한을 누군가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어느 시점에서 후임자의 문제를 꺼낸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형교회 특유의 목회를 이어받을 자격자란 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임자를 물색하여 그에게 교회를 순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카리스마의 통상화'(the routinization of charisma) 과정은 매우 중대하고 절실하다(Weber, 윌글; 박 영신, 1976/1978: 25-27). 목사는

10) 대형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07년에 나온 한 연구 조사를 따르면, 평균 출석교인의 수를 5천명 이상으로 잡을 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는 35개이다(Lee, 2007: 25-26). 이 글에서는 대형교회의 속성을 주목하고자 하기에 교회의 크기 그 자체에 얽매이고자 하지 않는다.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말로 교회 ‘창업자’(?)인 자신의 비전을 흐리게 하지 않고 충실히 이어갈 후임자를 찾아야 할 짐을 지게 된다. 이 일이 중대한 만큼 험난하고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은퇴 자체를 미루기도 한다.

후임자 문제는 목사만의 중대 관심사일 수 없다. 교회의 급성장 역사에서 주요한 직분을 가지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담임목사의 비범한 지도력을 직접 보아온 이들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애초의 비전이 탈색되거나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마음에서 이들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후임자 문제로 고심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형교회를 일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목사이기에 후임자 선임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 그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목사는 자기 혈육을 나눈 아들을 후임자로 내세워도 안전하다고 보고 세습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해 간다.

이 일에는 여러 조건이 붙는다.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이어받을 아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곧장 담임목사직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다. 후임자가 되는 데 손색이 없을 만큼 그도 ‘준비’를 갖춰야 한다. 신학교를 졸업해야 함은 물론 유학도 다녀와야 하고 여러 훈련 과정을 밟아 목회 소양과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자기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아들이 부목사나 전도사로 교회의 주요 부서를 맡아 일하면서 교중과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이와 같은 준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목사는 공식으로 자신의 후계 구도를 알리고 자기 아들이 후계자라고 공식으로 지명한다.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한다. 그와 같이해온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은 일찍부터 목사의 의중을 알고 있던 터라 그의 후계자 지명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나머지 목사의 존재는 교회 조직과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터라, 교회의 안정을 지키고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 오랜 고심 끝에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한다. 교중은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거기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단지 탄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긴다. 이 일로 교인들이 갈라져 나가는 것쯤은 크게 관심 둘 바도 아니다.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해야 한다. 교회 밖에서 이 일을 두고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은 ‘남의 집안 일’에 참견하려는 무례하고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자기 교회의 결정을 변호한다. 어느 거대 교회에서 벌어진 세습을 지켜본 젊은이가 내게 들려준 것처럼, 세습을 반대한다며 교회 문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는 것 정도는 간단히 무시된다. 그것은 기껏 ‘일부’의 의견일 뿐 ‘전체’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교회라고 자처하는 데서는 이러한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다.¹¹⁾ 카리스마의 통상화 과정은 이렇게 결말을 본다.

목사가 뜻하는 바대로 부드럽게 세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당회(또는 장로회/위원회)이다. 교단의 조직과 전통, 그리고 교회의 위계질서와 같은 여러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당회의 권한과 책임 행사가 세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 성권, 2002: 74-86). 달리 말해서, 당회의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목사 중심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당회의 자율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목사

11) 세습을 성사시킨 대형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계선(2009: 151) 볼 것.

중심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당회 조직의 자율성은 교회 세습의 성사와 함께 그 과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¹²⁾

위에서 보듯이 교회의 세습은 담임목사가 교회를 애초 설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공로와 지위가 확고한 데서 벌어진다.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켰거나, 개척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 거지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는 지역에 있던 작은 교회를 값나가는 새로운 주거지로 옮겨 대형교회로 키워, ‘교회 기업’의 창업자로 행세할 수 있는 카리스마의 인물이 세습을 획책한다. 그러한 까닭에 후계자가 되는 아들의 자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카리스마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후광 때문에 그 카리스마의 ‘세습 계승’으로(Weber, 윗글: 57) 어렵지 않게 용인되고 인정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동원하여 아버지가 자신의 목사직을 아들에게 넘겨야만 교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고, 교중이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교회 세습의 과정이다.

5. 되새김

교회 세습은 넓은 정당성의 근거를 획득하기에는 너무도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논의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의식 세계와 맞닥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표피의 수준에 머물러 그 문제 자체를 도려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는 어느 특정 표면의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 문제의 밑뿌리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땅에 묻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뿌리 없는 나무줄기는 없는 법이다.

교회 세습의 밑동은 (유사)가족주의 의식이다. 재벌가의 세습과 권력가의 세습 행태, 아니 우리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각각의 세습 행태 그 밑뿌리는 모두 같다(Y. Park, 2012). 이 모두는 같은 의식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자기 혈육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지향성은 고무줄과도 같아서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 지연으로, 학연으로 뻗어나가고, 집합 위기나 집합 흥분 상태에서는 국민 전체로까지 내뻗어나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지향성은 어쩔 수 없이 친분 중심의 비좁은 틀 안으로 회귀코자 한다. 다른 지역 사람보다 자기 지역 사람에게, 다른 학교 출신보다 자기 학교 출신에게, 다른 교단/교회보다 자기 교단/교회 인사에게 더 이끌린다. 더 가깝게 느끼는 이에게 특혜를 준다. 친밀함의 범위와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사로운 집단의 이기주의 의식에 뿌리내려 있다. 그러므로 이에서 비롯되는 행태는 꼭 같이 불공평하고 부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늘날의 경제주의 지향성이 더해붙어 특혜는 경제/물질/재산의 혜택으로 나타난다. 교회 세습은 이러한 의식의 세계에 터하고 있다.

‘교회 세습’은 분명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 시대의 문제이다.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 뿌리 내린 그 밑뿌리의 문제를 들춰내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땅 위로 뻗은 나무줄기 하

12) 이에 더하여 교중이 얼마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스런 소통의 새로운 문화를 선사했던 교회가(박 영신, 2004; 이 황직, 2007; 박 영신, 2004; 박 정신, 1976/1997; 1997: 203; C. Park, 2003: 123-129; 2004/2007; Y. Park, 2004/2007) 대형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민주스런 소통의 문화가 몰아냄을 당하고 소통의 능력도 잃어 버리게 되었다(박 영신, 윗글). 대형화는 능률과 효율을 강조해야 하는 일종의 관료제 조직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를 자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또 어리석다. 이러한 뜻에서 교회 세습의 문제는 그저 교회 세습의 문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문제의 '표면'이지 '밑뿌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문제의 '부분'일 뿐 문제의 '일반'일 수도 없다. 같은 뿌리에 이어진 다른 나무줄기들이 이미 뻗어 있다. 논의가 교회 세습 문제에만 파묻혀 꼭 같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의식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모순과 위선의 늪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맞닿아 있는 밑뿌리에서 나온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이어져 있을 밑뿌리와 나뭇가지를 동시에 가차 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시달리고 있는 비좁은 의식 세계를 돌파하여 더욱 넓은 관심의 의식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자기 부정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참된 뜻에서 '시민다움'을 일깨우고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다움이란 흔히 말하는 시민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이웃 일반에 대한 책임과 이어지는 삶의 지향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민다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됨'으로 돌아가, 현존하는 특권과 특혜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이웃'으로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뜻에서 '공공' 영역에의 참여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말하고(박 영신, 2003, 2011; 정 재영, 2012: 9장, 11장), 시대를 몰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행에 맞춰 살아가는 체제 추종과 순응이 아니라 이에 맞서는 체제 저항과 대안의 삶을 말한다(박 영신, 2010/2012).

그러므로 교회 세습의 문제는 더욱 깊은 논의를 요청한다. 이러한 논의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초월의 가능성을 믿는 자에게 맡겨져 있다. 오직 이 믿음의 사람만이 체제의 '넓은 길'을 거부하고 반체제의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길에 들어선 자신의 삶을 넘치는 하늘의 은총이라 여기고 이 길을 걷도록 부름 받은 자신의 삶을 과분한 하늘의 복으로 받아들인다.

<이어지는 글>

- 김성권, “한국 개신교의 가치성과 교회 세습”(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석사논문, 2002년 6월).
- 김은기, “민간 구술 문화로 본 한국인의 정서와 기독교 사상,” 유 동식 들, 『기독교와 한국 역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 문은희, 『한국 여성의 심리 구조』(서울: 도서출판 니, 2011).
- 문희춘, “교회 세습에 대한 이야기”(개인 서신, 2012년 1월 29일).
- 박영신, “사회 변동 과정과 사회 운동--분석적 개념으로서의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人文科學』, 35집(1976), 또는 박 영신,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78).
- , “한국 전통 사회의 구조적 인식,” 『延世論叢』, 14집(1977), 또는 박 영신,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78).
- , “조선 시대 말기의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현상과인식』, 2권 1호(1978년 봄), 또는 박 영신,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78).
- , “한국 교회, 그 사회학적 진단 및 개혁의 과제들”(연세대학교 제 1회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1981년 7월 13일-24일).
- , “한국 사회의 발전론”(한국사회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주제 강연/1983년 9월 16일), 또는 박 영신, 『역사와 사회 변동』(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87).
- , “기독교와 사회 발전”(연세대학교 교수수양회 주제 강연/1984년 2월), 또는 박 영신, 『역사와 사회 변동』(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87).
- , 『역사와 사회 변동』(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87).
- , “초기 개신교 선교사의 선교 운동 전략,” 『東方學志』, 46·47·48집(1985), 또는 박 영신, 『새로 쓴 변동의 사회학』(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6).
- , “한국 사회의 변동과 가족주의”(한국사회이론학회 발표, 1986), 또는 박 영신, 『역사와 사회 변동』(서울: 민영사/한국사회학연구소, 1987).
- , “한국 전통 종교 윤리와 자본주의,” 한국사회사연구회(역음), 『한국의 종교와 사회 변동』(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7), 또는 박 영신, 『우리 사회의 성찰적 인식』(서울: 현상과인식, 1995).
- , 『새로 쓴 변동의 사회학』(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6).
- , “종교적 물질주의: 우리의 전통과 사회 구조,” 『사회 이론』, 13집(1995), 또는 박 영신/정 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 , “두 갈래의 윤리 지향성, 그 울을 넘어,” 『사회 이론』, 16집(1998).
- , 『겨레 학문의 선구자 외솔과 한결의 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 “선한 사마리아 인에서 시민다움을 찾는다,” 『기독교신문』, 2003년 9월 18일자.
- , “'공공의 공간' 형성과 확장: 한말 조선 사회와 그 이후,” 『사회이론』, 2004년 봄/여름호(통권 25).
- , “개신교 정신과 '시민다움'의 삶,”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초 발표(감신대학교/2008년 11월 15일), 또는 『현상과인식』, 37권 4호(2011년 겨울).
- , “누구의 교회이며, 어떤 기독교인가?--우리의 신앙 상황--,” 송실대학교 제12회 베어드강좌 기초 강연(주제: 한국 교회, 그 어제, 이제, 그리고 올제/2010년 10월 25일), 또는 『현상과인식』, 36권 1/2호(2012년 봄/여름).
- , “실천 지성의 사람 최 현배의 '시민 기르기' 생각,” 『현상과인식』, 36권 3호(2012년 가을).
- , “교육의 체제화에 대하여: '시민 기르기'에서 '기능인 만들기'로”(2012년 손 보기 기념 강연), 『현상과인식』, 36권 4호(2012년 겨울).
- /정 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박정신, “한국 개신교 성장에 대한 역사학적 설명,” 『기독교사상』, 1989년 4월호, 또는 박 정신, 『근대 한국과 기독교』(서울: 민영사, 1997).
- , “기독교와 역사 변동--그 만남, 물림 그리고 엇물림의 사회사,” 박 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서울: 해안, 2004).
- , 『한국 기독교사의 새로운 이해』(서울: 도서출판 새길, 2008).

- , 「송실과 기독교」(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2011).
- 박형삼, “한국 개신교의 상징 체계 분석”(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석사논문, 1997년 6월).
- 벨라, 로버트, “기독교와 유교에서 보는 부자 관계,” 로버트 벨라, 「사회 변동의 상징 구조」(박 영신 옮김) (서울: 삼영사, 1981).
- 徐佑錫, “中産層 大型教會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文學碩士論文, 1993年 8月).
- 송재룡, “한국 사회의 삶의 정치학과 아버지,” 「현상과인식」, 28권 4호(2004년 겨울).
- /정 상근,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 습속’이 시민의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시민 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5권 4호(2011년 겨울).
- 유동식, “한국의 종교 문화와 기독교,” 유 동식 등, 「기독교와 한국 역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 이계선, 「대형교회가 망해야 산다」(서울: 들소리, 2009).
- 이원규, “교회 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원규, 「힘내라, 한국 교회」(서울: 동연, 2009).
- 이황직, “한국 사회 운동 참여자의 이문화적 습속: 가족, 민중, 시민,” 「현상과인식」, 28권 4호(2004년 겨울).
- , 「독립협회 토론 공화국을 꿈꾸다」(서울: 프로네시스, 2007).
- 정대위,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서울: 생각의 나무, 2007).
- 정재영, “한국 가족의 자녀 교육,” 「현상과인식」, 28권 4호(2004년 겨울).
- , 「한국 교회의 종교사회학적 이해」(서울: 열린출판사, 2012).
- 崔吉城, 「韓國의 祖上崇拜」(서울: 예전사, 19 86).
- 최현배, 「나라사랑의 길」(서울: 정음사, 1958).
-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서울: 두란노, 2005).
- 헌트리, 마서,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 성장」(차 종순 옮김)(서울: 목양사, 1995).
- Hong, Sung Woong. *Building A Power House: Korean Experience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amn Settlements, 1997).
- Lee, Soongwoo "Linus". "Three Korean Megachurches: The Growth and Decline of Three Korean Megachurches in the Cultural and Generational Backgrounds" (M.A. Thesis, Hartford Seminary, Connecticut, USA, 2007).
-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 , "Protestantism in Late Confucian Korea: Its Growth and Historical Meaning,"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8호(1992).
- , "The Protestant Church as a Political Training Ground in Modern Korea" (The Symposium on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Korean Cultur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2004년 5월 7일), 또는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1권.(2007)
- Park, Yong-Shin, "The Socio-cultural Dynamic of a 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The Experience of Korea," *Studies in Third World Societies*, 52호 (1994년 3월).
- , "Protestant Christianity and Its Place in A Changing Korea," *Social Compass*, 47권 4호 (2000년 겨울).
- , "The Church as A Public Space: Resources, Practices, and Communicative Culture in Korea"(The Symposium on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Korean Cultur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2004년 5월 7일), 또는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1권(2007).
- , "Heredity in Korean Churches" (Presented for Shorenstein APARC Seminar Series,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on May 4, 2012).
- http://iis-db.stanford.edu/evnts/7095/Heredity_in_Korean_Churches_edited.pdf
- Weber, Max.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S. N. Eisenstadt 역음)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광고 |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소개 www.seban.kr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김동호·백종국·오세택)는 한국 교회의 세습이 교회갱신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며, 교단마다 세습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목표로 교회리더십 교체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건강한 청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모인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회원단체로는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교회 세습 제보 및 상담신청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개별 교회의 세습 현황에 대한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 및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68-9489

이메일 churchseban@gmail.com

홈페이지 www.seban.kr, www.세습반대.kr

주소 150-0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출간



한국 교회가 청빙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목회자 청빙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실제적인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 출간 되었습니다. 목회자 청빙 과정을 통해 교회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와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건강한 청빙문화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교회개혁실천연대 목회자청빙연구위원회 저, 뉴스앤조이 출판

청빙상담 02-741-2793(교회개혁실천연대)

구매문의 02-744-4116(뉴스앤조이)

| 참여단체 소개 |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산성 100-4 산성감리교회
전화 043-353-2220 이메일 jbc209@hanmail.net

개혁교회네트워크 cafe.daum.net/reformingchurch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19
전화 010-3293-3392 이메일 kairos512@naver.com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교회2.0목회자운동 cafe.daum.net/church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4-2 청진빌딩 4층 405호
전화 070-7523-1563 이메일 vmschoi@gmail.com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www.nics.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0-2 에이원빌딩 2층
전화 070-8260-0208 팩스 02-323-0208 이메일 nics@nics.or.kr

바른교회아카데미 www.goodchurch.re.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 02-777-1333 팩스 02-319-1103 이메일 gcacademy@hanmail.net

성서한국 www.biblekorea.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34-0208 팩스 02-734-0209 이메일 bible-korea@hanmail.net

| 메모 |

| 학술 심포지엄 |

교회 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퍼낸날 2013년 2월 19일
퍼낸곳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퍼낸이 김동호·백종국·오세택

전화 02-2068-9489
이메일 churchseban@gmail.com
홈페이지 www.seban.kr, www.세습반대.kr
주소 150-0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이 책의 저작권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있습니다. 본 단체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